

# 氣功診斷法の 現況과 現代的인 觀點에 대한 報告

오충선\* · 송성애\*\* · 이기남\*\*\*

大韓醫療氣功學會

## I. 序論

近代科學 中에서 '氣'는 오랫동안 非科學的인, 時代에 뒤떨어진 概念으로 無視되어 왔다. 그 하나의 理由는 氣의 概念을 中心으로 하는 中國의 自然觀이나 中國醫學 등이 西洋科學의 發想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近代科學의 立場에서 도저히 理解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氣의 科學的研究가 오늘날 意義를 갖는 것은 東洋的인 패러다임이 現代的 科學文明과의 충돌에서 그 整體性을 찾아가는 側面과 現代科學文明이 原子論을 바탕으로 한 還元主義의 限界를 突破하려는 자구책의 실마리가 된다는 側面이 있다. 1) 科學的 研究라고 하면 實驗이나 客觀的 考察을 통해서 反復的으로 客觀的 證據를 제시하는 節次와 方法을 採擇하는 研究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氣'의 整體가 무엇인가, 氣功이란 무엇인가, 外氣는 무엇이며 內氣는 무엇인가, 氣功의

效果 등에 대한 解答를 얻기 위해 많은 專門家들이 매달리고 있다. 2) 따라서 氣功의 研究는 氣의 研究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氣功의 現代的 研究는 氣를 어떻게 現代的으로 認識하고 糾明해 나아가느냐 하는 科程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氣功의 現代的 研究 形態는 곧 科學的 認識으로서의 氣를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서 使用되는 境遇가 많으며, 氣功 自體에 대한 研究가 相對的으로 不在한 경우가 많은 것이 現實이다. 우선 氣의 存在를 밝히기 위해서 氣功師의 外氣를 科學的으로 測定하였고, 그 外氣의 多樣한 作用으로서 發生하는 여러 가지 物質的 變化를 研究함으로써 氣의 物質的 證明에 焦點을 맞춘 것이다.

그 결과, 현재 氣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 概念으로 定義하고 있는데, 生命力·生命 에너지·生體 에너지·生命의 根源的 힘으로의 氣(生物學的 概念), 에너지로서의 氣(物像的 概念), 宇宙的인 에너지(哲學的 概念), 意識化된 에너지(心理學的 概念)으로 나눌 수 있다. 3) 즉, 現代

\*,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대한의료기공학회

1) 김준한·안병상·류영수 : 氣功醫學會誌 제2권 제1호, 氣功에 대한 科學的 研究側面的 考察 發行處 大韓醫療氣功學會, 1998, pp205 ~ 229

2) 김재은 : 氣의 心理學, 서울, 梨花女子大學出版部, 1997, p.16

의 視覺으로 볼 때 氣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는 生命體의 特有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氣에 대한 修練의 科程인 氣功에 대해 《素問·上古天真論篇》“上古之人，知其道者，法於陰陽，和于術數，飲食有節，起居有常，不妄作勞，故能形與神俱，而盡千年，度百歲乃去”<sup>4)</sup>에서 和于術數의 術數는 氣功을 意味하는 것으로 韓醫學에 있어서 氣功歷史의 悠久함과 重要性을 알 수 있다. 古代 中國에서는 望氣術이 盛行했다. 雲氣나 星辰의 氣運을 읽음으로써 情況이나 미래를 判斷하는 것으로서, 當時 政策이나 戰略의 決定에 큰 影響力을 行使했다고 記錄되어 있다. 또 風水術은,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한창 論難이 되고 있지만, 中國과 韓國에서 발달한 理論이다. 墓자리 造成, 家屋, 빌딩의 新築, 심지어 都市 計劃을 하는 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天地陰陽의 氣의 흐름이 調和되어 있고, 生氣가 차 있는 場所를 찾는 것이 風水師의 일이다. 天地 自然의 氣運을 찾아 내는 일이 風水師의 일이라면, 人體의 氣의 흐름을 찾아 내는 것이 氣功 診斷인 것이다.<sup>5)</sup>

또한 우리 人體 周圍에는 各種 自然의 氣가 存在하지만, 우리는 평소 이러한 氣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만큼 氣功 診斷에서는 氣에 대한 原理의 理解도 必要하지만 보다 重要한 것은 氣를 感覺의으로 體驗하는 것이다.<sup>6)</sup> 宇宙萬物은 氣의 作用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氣가 存

在하지 않는 곳은 없다. 韓醫學은 小宇宙인 人間의 健康을 維持하며 疾病을 豫防하고 治療하기 위한 學問이므로, 이 또한 氣와 떼어 놓고는 考慮할 수 없는 것이다. 즉 韓醫學은 氣의 學文이며, 診斷과 治療 역시 氣에 바탕을 둔 것인데, 傳統 醫學의 望, 問, 聞, 切 등의 診斷法은 널리 알려져 있는 데 비해, 韓醫學의 重要한 部分인 氣功의 診斷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本 論文에서는 氣功 診斷法의 概念과 由來 및 現況에 대해 알아보고, 氣功 診斷法을 分類하고, 각각의 原理와 體得方法 및 使用法에 대해 살펴본 後에, 現代의인 眼目에서 接近한 氣功의 診斷에 대해 考察한 結果를 다음과 같이 報告 한다.

## II. 研究方法

氣功 診斷法에 觀한 古典文獻 및 現代文獻들과 論文을 參考하여 다음 事項에 대해 調査한다.

1. 氣功 診斷法의 概念 및 由來와 現況에 대해 알아본다.
2. 氣功 診斷法의 原理와 種類 및 修練方法들에 대해 알아본다.
3. 氣功 診斷法의 現代科學的인 接近에 대해 알아본다.

## III. 本論

### 1. 氣功 診斷法의 概念 및 由來와 現況

氣功의 辭典의 意味는 옛날 養生<sup>7)</sup>法의

3) 上揭書 : p.16

4) 程士德 主編 : 素問注釋准粹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

5) 김재은 : 前揭書, p.271

6) 양요한 : 陰陽五行氣功, 서울, 麗江出版社, 1994, p.123

7) 養生 : 몸을 든든하게 하고 病이 생기지 않게 해서 오래 살기 위하여 飲食, 情緒, 性生活 등 生活準則을 規則的으로 하는 方法이다. (東醫學辭典, 서울, 까치 出版社, 1990)

하나로 呼吸調節과 精神을 安靜하고 集中시키는 것을 규정대로 反復하여 氣血을 고르게 함으로써 몸을 든든하게 하고 또 病을 治療하는 方法으로 흔히 눕거나 앉거나 서서하는 것이다.<sup>8)</sup> 氣功의 起源은 매우 오래되었으나 現在 그것의 直接的 資料는 아직 發見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미 나와있는 前後 時期의 文獻에 의하면 氣功 또한 當時 氣候나 其他 狀況에 聯關하여 發生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孟子·滕文公上》云 ‘當堯之時 天下猶未平 洪水橫流 汎濫於天下 ……」<sup>9)</sup>라하여 당시의 氣候 狀況을 말하고 있고, 《史記·五帝本記》에도 ‘湯湯洪水滔天 浩浩懷山襄陸’라 記述되어 있다.

현재 쓰이고 있는 氣功이라는 말은 고대 中國의 隋唐時期의 《太清調氣經》에 “服氣功余暇, 取靜室無人處, 散發脫衣…”라 하여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10)11)</sup> 또한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恬淡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呼吸正氣, 獨立守神, 肌肉若一.”라 하여 上古時代부터 氣功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가 있다.<sup>12)</sup>

氣功學은 古代의 養生學에서 비롯되어 數千年 동안 꾸준한 修練과 訓練을 통하여 지금까지 發展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現代科學의 발달에 의하여 氣功의 效果가 非科學的이라는 이유로 왜곡당하고 있어 훌륭한 東洋科學이 無視되어진 점도

있으나 最近에는 西方 先進國들에서도 이 氣功의 效果를 認定하고 많은 研究와 集中 投資를 하고 있으며 世界 尤수의 유명 의과대학 등에서도 實際 臨床에 적용을 하고 있고 既存의 다른 治療보다 優秀한 效果를 나타내고 있는 分野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人類의 健康한 삶을 위하여 여러 分野에서 廣範圍하게 波及되고 있다.<sup>13)</sup> 1950년대 以後 效率的인 研究와 實踐을 爲하여 韓醫學을 中心으로 古來의 守一法, 存思法, 胎息法, 吐納法, 坐禪法, 靜坐, 調息, 內丹法, 外丹法, 導引法, 內家拳 및 外家拳 等の 心身 修練法을 總括하여 여러 分野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比較, 研究하고 臨床에 適用시키는 分野가 成立되었는데 이를 總稱하여 ‘養生法’ 혹은 ‘氣功’이라 한다.<sup>14)15)</sup>

氣功의 범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心身 修練法은 東洋의 각각의 나라에 존재해 왔으며, 고유의 特性을 지니며 발전해 왔으며 나름대로 研究가 되어 왔다. 그러나, 近代에 들어서 新中國의 성립이후 옛날의 傳統的인 것에 비추어 새로운 것을 導出해 내려는 기풍이 일면서 氣功에 대한 대대적인 再照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氣功의 現代의인 규명하려는 作業이 주로 現 中國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氣功’이라는 體系와 名稱의 출발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하겠다.

13) 홍성균 : 疾患別 氣功治療學, 서울, 出版社 大學書林, 1998, p.11

14) 陽思澍 外 編著 : 中醫臨床大全, 北京,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88, p.1289

15) 中國에서는 劉貴珍(1920~1983)이 1954년 最初의 氣功專門 醫療機關인 唐山氣功療 養院을 開設하고 古來의 氣功系統의 養生法을 研究하며 強壯功, 內養功, 保健功 等の 發表와 더불어 1957년에 《氣功療法實踐》을 펴내어 “氣功”이 古來의 各種 呼吸法, 導引養生法등을 通稱하는 用語로 定着되었다.

8) 科學百科事典綜合出版社 著: 再編集 東醫學辭典, 서울, 圖書出版 까지, 1990, p.144

9) 朴一峰 譯 : 東洋古典新書2(孟子), 서울, 育文社, 1994, p.169

10) 洪丕謨 編 : 道藏氣功要集(下), 上海, 上海書店出版, 1995, p.1191

11) 柳元禎 外1人 主編 : 中醫氣功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3

12) 上掲書 : p.4

16)17)18)

氣功研究는 여러 科學研究領域에 관련되어 있다. 이를테면, 現代醫學, 生物學, 物理學, 心理學等이다. 氣功의 現代的研究의 돌파구는 科學技術의 발전과 새로운 研究思惟와 研究方法에 의존하며, 동시에 氣功의 研究는 人類文明의 進步를 촉진한다. 氣功實驗研究는 50年代 末부터 시작되었다.<sup>19)</sup> 그 당시 研究되었던 '氣功이 人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練功後의 生理, 生化學的 變化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練功後의 胸電位, 肌電位, 皮膚電位, 呼吸, 消化液, 血壓, 心率, 皮膚溫度, 血液, 成分, 尿의 變化 등이었다. 70年代 末에 들어서 大衆의인 氣功鍛鍊의 기초 위에 氣功에 대한 實驗 研究를 더욱 강화시켰는데, 進一步된 氣功의 生理方面에 일정한 氣實驗이 있었으며 이밖에도 生化學, 免疫學과 細胞形態에 대한 실험도 상당수 있었다.<sup>20)</sup>

歷史上 氣 科學 研究의 劃期的 繼起는 1985년 中國 상하이 氣功研究所의 設置를 들 수 있다. 이 研究所의 설치를 계기로 '氣의 原理' '生體 情報와 效果' '療養' 등의 研究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6년에는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회 國際氣功 심포지엄에서는 여러 가지 實驗 結果가 報告되었다. 1988년에는 中日의 公同 企劃으로 日本에서 '氣와 人間 科學'이라는 主題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sup>21)</sup>

16) 김재은 : 前掲書, pp.35~36

17) 이동현 : 前掲書, pp.47~51

18) 임후성 著 임준규 譯 : 中國氣功, 北京, 保健新聞社, 1987, pp.33~36

19) 이동현 : 前掲書, p.49

20) 1978년에는 中國 科學院 原子核 研究所와 上海 中醫學院의 林厚省이 合作하여 氣功師의 손에서 放出되는 '氣'를 現代 科學計器로 測定하는 데 成功하였다.

韓國의 氣功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古朝鮮 時代로 볼 수 있다. 檀君時代의 經典이라는 <三一神話>에 止感, 禁觸, 調息이라 하여 氣功의 3요소인 調心, 調息, 調身에 관련 論하였으며, 各種 韓國古 代史가 수록된 문헌을 근거로 하면 氣功의 기원은 神仙家로부터 비롯된 韓國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들은 아직 제도권에서 그 正統성을 인정치 않으므로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醫學을 뜻하는 漢字인 醫가 처음에는 鑿였던 것으로 보아, 醫療氣功은 醫學, 養生法 그리고 巫俗信仰이 混在되어 있던 시기부터 起源함을 추정할 수 있다. 韓醫學界에서는 氣功學에 대한 관심이 1980년후반부터 學制的 研究로 이어지고 있으며,<sup>22)</sup> 1996년에 최근의 학계에서의 동향을 보면 주로 現代科學의 입장에서 여러 方面으로 규명되고 있다. 특히 物理學과 醫學界에서 '氣'의 存在有無에 대한 研究와 '氣功修練'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sup>23)</sup> 1996년에 大韓韓醫學會 내에 大韓氣功醫學會가 설립되어 山中에서 非公開로 傳受되어오던 門派들의 功法를 現代化하여 修練, 研究, 臨床活用하고 있다.

古代 中國에서는 望氣術이 盛行했다. 雲氣나 星辰의 氣運을 읽음으로써 情況이나 미래를 判斷하는 것으로서, 當時 政策

21) 김재은 : 前掲書, p.71

22) '金字鎬 : 氣功學 發達에 關한 文獻 研究, 慶熙大韓醫學科 大學院, 1991.' 등 10여편 안팎의 氣功學에 關한 碩士 博士 論文이 현재 나와 있다.

23) 부산 동의대의 이상명 教授의 '超空間 轉移'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의 生命工學研究所의 氣醫學 分科의 정현택, 유훈교수팀의 '氣功'이 人體 免疫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등 여러 研究가 進行되고 있다.

이나 戰略의 決定에 큰 影響力을 行使했다고 記錄되어 있다. 또 風水術은,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한창 論難이 되고 있지만, 中國과 韓國에서 발달한 理論이다. 墓자리, 造成, 家屋, 빌딩의 新築, 심지어 都市 計劃을 하는 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天地陰陽의 氣의 흐름이 調和되어 있고, 生氣가 차 있는 場所를 찾는 것이 風水師의 일이다. 天地 自然의 氣運을 찾아 내는 일이 風水師의 일이라면, 人體의 氣의 흐름을 찾아 내는 것이 氣功診斷인 것이다.<sup>24)</sup> 氣功진단은 人體內에서 磁氣, 또는 氣의 均衡이 이루어져 있는가, 不均衡 狀態인가를 診斷하는 것으로서 陰陽의 兩極에 관한 理論을 應用한 것이다.<sup>25)</sup> 즉, 氣功診斷法은 患者의 氣波를 感知하거나 患者의 內部 狀態를 透視하는 것으로, 手感·體感診斷, 진동자 측정법, 觀氣法, 意感法, 透視法, 遙視法等이 있다. 이런 診斷法들은 醫師의 修練水準(功力)이 높아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診斷時 醫師의 內氣를 使用하는 것이기 때문에 多數의 患者에게 行하기가 어렵다.<sup>26)</sup>

## 2. 氣功診斷法の 原理

### 1) 氣의 意味

人間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生命 에너지, 혹은 精神이나 物質을 포함한 根源的인 힘을 氣라고 부른다. 氣를 調節하는 技術이나 鍛鍊을 氣功이라 부르며, 氣功의 훈련에 숙달한 氣功師의 生체에서

放出되는 에너지를 外氣라고 부른다. 氣는 역사적으로 보면 中國 宋明대의 理氣 哲學者들에 의해서 이른바 存在論으로서 다루어졌으며, 戰國 時代에서 漢代에 걸쳐서는 萬物의 生成 原理로서 다루어졌다. 즉 우주·자연·인간을 만든 실질적인 힘, 에너지의 根源으로서 氣를 문제삼았으며, 비단 中國의 儒教傳統뿐만 아니라 道教·佛敎에 이르기까지 中國 思想에 一貫되게 다루어져 왔던 개념이고 주제였다. 氣 연구자들 사이에 대체로 합의된 氣의 정의가 根源的 生命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는 現代 科學에서 말하는 物質과 等價의 에너지가 아니고 意識 作用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異質的 에너지라고 定意하는 學者들이 많다.<sup>27)</sup> 圓光大學校 부설 生命工學研究所 氣醫學分科의 정헌택 教授를 비롯한 研究員 등이 쓴 '氣의 時代, 免疫의 時代'를 보면, "免疫은 氣"라고 定義한 部分이 있다. 현재 氣에 대한 醫學的 研究는 다양하지만 그 중 疾病의 豫防과 治療와 같은 正統的인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精神 神經 免疫學에 힘입어 神秘에 가려졌던 氣 修練의 效果가 科學的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研究된 것을 假說的으로 정의한 氣의 概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氣는 生命力, 生命 에너지, 生體 에너지, 生命의 根源의 힘이다. (이것은 다분히 生物學的인 概念이다.) 둘째, 氣는 에너지이다. 物質이다. 情報이다. (物象의 概念으로 본다.) 셋째, 氣는 宇宙的인 에너지이다. (哲學的인 概念) 넷째, 氣는 意識化된 에너지이다. (心理學的 概念)

24) 김재은 : 前掲書, p.271

25) 장동욱·정훈섭 共著 : 綜合氣功, 서울, 出版社 좋은글, 1998, pp.230~232

26) 이은미·박은정·유창순 : 大韓氣功醫學會誌 제2권 제2호, 醫療氣功에 대한 考察, 發行處 大韓醫療氣功學會, 1998, p.180

27) 김재은 : 氣의 心理學, 서울, 出版局 梨花學術叢書 pp.16~25

이러한 定義들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共通된 氣 概念은 “自然과 人體에 다함께 充滿되어 있고, 흐르고 움직이면서 작용하는 生命 에너지이다. 그리고 測定하거나 客觀적으로 把握하기가 容易하지 않다. 重要的 點은 意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sup>28)</sup>

## 2) 人體 氣의 構造와 經絡

人體의 氣의 構造는 上丹田, 中丹田, 下丹田의 3개 內丹田과 양 손의 掌心과 양발의 龍泉을 포함하는 4개 外丹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丹田에서는 氣를 合成, 調節하며 下丹田, 中丹田, 上丹田에서 合成되는 氣에너지를 各各 精, 氣, 神이라 稱하며 全身으로 그물처럼 뻗어 있는 氣脈을 통하여 에너지를 運搬하고 流通하면서 人體 生命 活動을 維持 시키고 있다.<sup>29)</sup> 또한 人體 各 部分들의 密接한 連繫 그리고 相互 依存과 相互 制約 關係는 動的인 均衡 속에서 遂行된다. 이러한 均衡을 이루는 基本構成의 通路가 經絡이다. 經脈은 上下內外로 貫通된 經絡系統의 主線이고, 絡脈은 그물 모양으로 全身에 分布된 가늘고 비교적 작은 補助線이다. 經絡은 全身에 가로 세로로 엮여 있지만 規則적으로 循環하여서 人體內的 五臟六腑, 四肢, 頭部, 9竅, 皮, 肉, 筋脈 등 組織機關과 緊密히 聯關되어 하나의 統一체를 이루었다. 12經脈은 人體의 表裏에 分포되어 反復적으로 循環하면서 絶 새없이 흐른다.<sup>30)</sup> 氣功의 經路를 살펴보면 大多數의 氣功師들은 外氣를 發放하는

經路는 經絡의 方向에 應해서 한다고 認定을 하는데, 卽 手三陰經은 胸部에서 上肢內側을 따라 손으로 向하고, 手三陽經은 손을 따라 上肢外側을 따라 머리로 向한다. 足三陽經은 머리에서 背部를 지나 外側으로 走行하여 발에 이르고 足三陰經은 발에서 下肢內側을 따라 배로 向한다.<sup>31)</sup>

人體經絡氣血流注의 理論<sup>32)33)</sup>을 살펴 보면, 일찍이 《內經》에서 상세히 記述하고 있는데, 《靈樞·營氣》에 “營氣之道……常營無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 故氣從太陰出, 注手陽明, 上行注足陽明, 下行至跗上, 注大指間, 與太陰合, 上行抵脾, 從脾注心中, 循手少陰出腋下, 臂注小指合手太陽……”라 했다. 十二經脈 氣血流注의 次序는 手太陰肺經에서 開始하여 手陽明, 足陽明, 足太陰, 手太陰, 手太陽, 足太陽, 足少陰, 手厥陰, 手少陰, 足少陽, 足厥陰에서 다시 肺에 모인다. 별도로 十二經脈流注의 別支로 督任二脈이 流注하는데 이마에서 시작하여 정수리를 돌아 목덜미로 내려와서 척추를 灌注하여 꼬리뼈로 들어가고 다시 任脈이 上行하여 肺에 모인다. 이것으로 氣血運行은 돌고 다시 반복하여 시작한다. 이것의 根據로 《靈樞·五十營》에 “日行二十八宿, 人經脈上下, 左右, 前後二十八脈, 周身十六丈二尺, 以應二十八宿, 漏水下百刻, 以分晝夜. 故人一呼, 脈再動, 氣行三寸. 一吸脈亦再動, 氣行三寸. 呼吸定息, 氣行六寸……”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人體氣

28) 上揭書 : pp.29~32

29) 장동욱·정훈섭 共著 : 前揭書, pp.160~163

30) 이원춘 編著 : 146가지 氣功療法, 서울, 태학당 出版社, 1996, pp.20~21

31) 王寅 外 : 氣功特殊診病法,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9, pp.47~50

32) 王慶余, 曠文楠 著 : 道醫竅秘,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4, pp.208~209

33) 馬禮堂 編著 : 中老年保健功, 北京, 中國城市出版社, 1991, pp.8~31

血運行이 時間의 移動에 따라서 運轉하는 것을 說明하였다. 人體 十二經脈流注의 規律은 子 寅時에 手太陰, 卯時에 手陽明, 辰時에 足陽明, 巳時에 足太陽, 午時에 手少陰, 未時에 手太陽, 申時에 足太陽, 酉時에 足少陰, 戌時에 手厥陰, 亥時에 手少陽, 子時에 足少陽, 丑時에 足厥陰의 순서로 周行하고 반복 시작한다.

### 3) 氣의 分類 및 作用

氣功診斷法에 대해 알기 위해선 氣의 種類와 氣의 性質을 제대로 把握하고 있어야 診斷이 正確해지므로 參考文獻들을 통해 알아본 結果를 다음에 提示한다. 生命의 根源으로서의 氣는 크게 天地에 가득찬 自然의 氣와 人體에 直接 作用하는 先天的인 氣 및 後天的인 氣로 區分된다. 여기서 先天的 氣는 交接과 受胎의 過程에서 父母로부터 받으며 胎盤을 통해 생겨난다. 後天的 氣는 태어난 뒤에 呼吸의 氣와 飲食物에서 받는 水穀의 氣가 합쳐져서 생기는 데 이것을 眞氣, 原氣, 正氣라고 한다. 氣는 人體生命活動 基本物質을 構成하고 또한 內氣는 原氣, 宗氣, 眞氣, 榮氣, 衛氣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34)</sup>

人體의 內氣는 先天的 氣와 大自然의 氣에서 來源하며 內氣로 因하여 人體의 正常生命活動을 維持할 수 있으며 內氣가 있으면 生命이 있고 內氣가 없으면 生命도 없다. 人體의 內氣는 不斷히 皮膚의 汗孔과 汗腺, 呼吸等을 通하여 散發되어 體外로 排出되면 外氣라 稱한다. 外氣散發은 體內環境變化(例를 들면 體溫等)와 周圍環境變化等의 要素에 影響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先天的 氣에 大自然의 氣가

加해져 變化하여 人體의 內氣가 되고 內氣가 다시 散發하여 體外로 나가면 外氣가 된다. 이 樣相이 돌아 다시 新陳代謝의 모습으로 始作하고 進行되어 物質交換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正常的인 生理現象이다.<sup>35)</sup>

東醫古典에서는 生命의 根源으로서의 氣의 機能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첫째, 氣는 生命의 發生과 태어난 뒤의 生命維持와 그리고 有機體를 한결같이 維持하는 데 重要的 役割을 한다. 둘째, 氣는 人體에서 動力學的 機能을 한다. 즉 物質代謝나 血液循環, 利尿作用 등은 氣의 推動作用에 의해 進行되는 것이다. 셋째, 氣는 몸에서 物質을 여러 가지로 變化시키는 機能을 한다. 이를 氣化 또는 生化作用이라고도 하는데 代表的인 것이 氣에 의해 飲食物이 消化吸收되어 여러 形態로 變化되는 것이다. 넷째, 氣는 人體와 外部環境과의 統一을 維持하는 데 重要的 役割을 한다. 여기에는 經氣, 衛氣가 이 役割을 修行하는데 특히 衛氣는 人體에 들어온 病因의 要素를 防禦하는 同時에 有機體와 外部環境과의 統一을 維持하는 데 重要的 機能을 한다.<sup>36)</sup>

### 4) 氣功診斷法の 原理와 氣功修練 過程

#### (1) 得氣感의 意味와 體得科程

氣功診斷을 함에 있어서 得氣가 重要的데, 得氣라는 것은 練功者가 練功의 一定한 時間 後에 全身放送이 되고 呼吸調和와 思想入靜에 들어가면 全身이나 어떤 部位에 이런저런 感覺이나 運動이 出現하

35) 王寅 編著 : 氣功外氣療法, 山西省, 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91, p.45

36) 양요한 : 前揭書, pp.27~28

34) 양요한 : 前揭書, pp.27~28

는데 이러한 情況을 綜合하여 得氣라고 한다.<sup>37)</sup> 그리고, 氣功鍛鍊 過程 중에 특별히 靜功을 練磨하는 學習 初期 段階에서 氣功을 練磨하는 者는 몸에 緊張을 풀고 생각을 느슨하게 하면서 入靜하면 곧 자신의 몸에서 비교적 纖細한 感覺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感覺은 平常時 깨어있을 때에는 전혀 없던 것으로 氣功中에 생기는 이러한 種類의 感覺을 일러 '得氣感'이라 한다.<sup>38)</sup> 鍼灸文獻에 보면 '死生貴賤 針下皆知 賤者硬貴者脆 生者濇死者虛'<sup>39)</sup> 라 하여 氣至가 體質과 病症에 따라 影響을 받음을 說하였는데 小兒, 虛弱體質, 感受性이 銳敏하거나 神經質 精神의 不安等인 때에는 쉽게 氣至反應을 느끼며 實證인 境遇에 虛症보다 빨리 얻는다. 또한 經絡 穴位에 따라서 氣至感應은 影響을 받는데 身體의 全面 四肢의 屈側 指端等이나 神經分布가 密集한 部位는 一般的으로 쉽게 氣至反應을 얻을 수 있다. 氣功診斷時에도 亦是 經絡이 敏感한 사람은 得氣感이 顯著한데, 小兒, 虛弱體質, 感受性이 銳敏하거나 神經質인 사람, 男子보다는 女子가 得氣가 잘 일어나는 것 같다.<sup>40)</sup>

이러한 得氣感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이것들이 일정한 生理基礎와 物質基礎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入靜態에 들어가서 몸에 緊張을 풀 때에 外部로 循環하는 微細血流量이 變化하고 人體의 感

覺과 知覺部位의 깊이 變化하며 神經系統中에서 內分泌性的인 모르핀 같은 物質이 排出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런 種類의 得氣感은 純粹하게 主觀的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錯誤이다. 그러나 人體는 하나의 複雜한 生命體이므로 得氣感이 形成되는 過程中에 思想과 意識이 參與하여 活動하게 된다.<sup>41)</sup>

得氣 過程에 心理活動이 參與하는 것은 우선 感覺的인 體驗으로 表現되는데, 이것은 氣功을 練磨할 때 三調<sup>42)</sup>의 掌握程度에 影響을 받는 것이 아니며 또한 氣功을 練磨하는 사람의 心理的인 參與와 有關하다. 이런 種類의 參與가 마땅히 積極的이고 有限的이면 곧 良好한 得氣感에 到達할 수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 各種 古典文獻과 論文 資料에 따르면 氣功外氣治療때에 病人의 得氣感은 針治療시와 비슷하며, 주로 酸麻重脹緊等의 反應이 나타나는데, 以上の 結果로서 得氣感이 臨床的으로 매우 중요한 意義를 갖으며 六氣와 聯關지어 診斷이나 治療部分에 利用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 (2) 氣功診斷法の 原理

氣功診斷法은 經絡學說, 陰陽五行學說, 運氣學說 등의 韓醫學的인 理論을 바탕에 두고, 醫師가 發功을 해서 患者의 狀態를 把握하는 것이다. 이 診斷法을 圓滑하게 運用하려면 醫師가 一定水準 以上の 功力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sup>43)</sup> 이렇게 氣功診

37) 越寶峰 : 氣功療法 100問, 甘肅省, 甘肅人民出版社, 1984, p.64

38) 柳元亮 外1人 主編 : 前掲書, p.42

39) 崔容泰 外 : 鍼灸學(下), 서울, 集文堂, 1988, p.1078

40) 이현경 · 김경환 · 윤종화, 大韓氣功醫學會誌 제2권 제2호, 外氣治療時 得氣感에 觀한 臨床的인 考察, 서울, 發行處 大韓醫療氣功學會, 1998, p.12

41) 柳元亮 外1人 主編 : 前掲書, p.42

42) 上掲書, p.235 ; 1. 調身 : 全身을 弛緩시키고 一定한 姿勢를 取하게 한다. 2. 調息 : 氣의 鍛鍊, 즉 呼吸의 鍛鍊과 內氣의 鍛鍊. 3. 調心 : 몸의 어떤 部位를 意守해서 入靜을 誘導하고, 그것으로 몸의 調整, 修復과 建設 作用을 일으킨다.

43) 이은미 · 박은정 · 유창순 : 醫療氣功에 대한 考察, 發行處 大韓醫療氣功學會, 大韓氣功醫



斷法을 利用해 患者를 診察하기 위해서는 먼저 人體內의 臟腑의 位置와 그 臟腑의 影響을 받는 人體의 各 部位를 정확히 把握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四肢를 貫通하고 있는 十二經絡의 構造를 통해서 六臟六腑의 狀態를 알 수 있으며, 脊椎의 各 뼈마디 사이에 있는 六臟六腑의 俞穴의 位置를 통해서 各 臟腑의 健康狀態 및 뼈의 退化狀態를 測定할 수 있다. 얼굴의 경우에도 臟腑에 따라 各 部位를 나누어 봄으로써, 이곳에 痛症이 느껴질 때 그 痛症의 原因을 臟腑의 狀態와 關聯지어 把握할 수 있다.<sup>44)</sup>

氣功診斷에 대해 現代科學的인 側面에서 볼 때 精神物理學係에서는 自然物은 제각기 固有한 振動波長을 띠고 있으며 相互 影響을 주고 받는다는 事實에 重點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生命體에서 發生되는 波長, 즉 에너지가 內包된 振動波를 氣功에서는 生體氣 또는 生氣라고 부른다. 우리의 身體는 수많은 細胞가 組織이나 機關 또는 臟器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身體自體가 發散하는 氣의 波長은 6.8내지 7.5헤르츠이다. 그런데 우리의 身體를 構成하고 있는 이러한 振動場은 外部의 여러 電磁氣場에 크게 影響을 받는다. 이 過程에서 振動波가 다른 物體의 振動波와 마주쳤을 때는 간섭무늬 振動波가 만들어져 그 物體에 影響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때 한 振動波가 自身과 振動數가 같은 다른 物體를 만났을 때는 共鳴狀態를 이루어 振動波가 最適의 狀態에서 傳達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振動數를 가진 物體들이 여럿 있을 때는 어느 한쪽의 振動數에 맞추어 함께 振動

하게 되는데 이를 리듬便乘이라고 한다. 氣功修練을 하게 되면 人體內의 氣運을 잘 循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自然의 各種 生氣에 感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명상 氣功을 통해 自身의 身體感覺을 잊어버리게 되는 단계 즉, 入靜에 이르게 되면 自身과 大自然의 境界가 사라지고, 身體가 宇宙와 하나가 되어 他人의 기를 感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의도적으로 集中한 狀態에서 一定한 意念을 가지면 이를 外部로 보낼 수 있는데, 氣功修練을 통해 集中力이 高度로 높아지면 腦波가 세타波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때 頭腦의 神經細胞를 點火하게 되어 頭腦皮質 속의 通路를 따라 微細한 電流가 發生하고, 이 電流는 頭蓋骨 表面에서 電極測定裝置와 같은 敏感한 器具로 捕捉할 수 있으며 이때 最少한 70밀리볼트의 電壓이 發生한다. 이때 發生한 微細電流가 外部로 放出되어 相對方의 振動波長과 感應하여 相對方의 氣運을 느낄 수 있다.<sup>45)</sup> 以上 氣功診斷에 대해 精神物理學係에서 보고 있는 學說을 整理하면 氣功診斷은 自身의 腦波를 下降시키면서 自身의 身體의 狀態를 잊고, 相對方의 身體條件과 一致하는 一種의 波長, 에너지場의 影響으로 相對方의 身體와 共感帶를 維持하면서 相對方의 頭腦와 內臟의 狀態 등을 自身의 몸을 통해 確認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診察을 하려면 一定한 氣功修練을 必要로 한다는 것이다.

### (3) 氣功診斷法の 修練 및 體得科程

氣功診斷을 하기 위해서는 外氣를 運氣시킬 수 있는 能力을 갖추는 게 重要하며, 外氣를 意念으로 經絡들이 運行하는

學會誌 제2권 제2호 1998년, p.157

44) 양요한 : 前掲書, p.196

45) 上掲書, pp.73~77

길로 通過시키면 氣血이 運行하는데 有利한데, 또 發出하는 外氣가 強하면 方向이 正確하다. 外氣運氣를 잘하기 위해서는 意念을 鍛鍊하는 것이 重要한데 氣는 意를 따라 行하고 意는 氣를 따라 行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便하게 하는 것이 入靜의 初步段階로 우선 意守丹田하여 쉽게 意念으로 氣를 다스리고 意念에 따라 氣를 運行시키는 것이다.46) 즉, 氣功診斷法을 練磨하는 過程에서 重要한 方法중 하나가 바로 '意守'인데, 通俗的으로 理解한다면 意守는 사람의 生覺으로 注意力을 人體의 어느 한 點, 어느 한 穴位, 어느 한 臟腑, 어느 一部分, 몸밖의 어느 하나의 客觀的인 物體나 景致 혹은 어떤 言語나 音節, 文字 등에 集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럴 때 大腦 皮質層에는 다만 意守로 目標한 하나의 흥분점만을 세워 皮質層의 기타 다른 區域과 部位를 抑制하게 되는데 氣功의 述語를 빌리어 表現하자면 곧 一念이 萬念을 代身할 수 있다는 말로 또한 說明할 수 있다. 意守에는 內景意守와 外景意守가 있다. 丹田意守, 命門意守, 湧泉意守, 百會意守처럼 身體의 어느 部位를 意守하는 것은 모두 內景意守다. 反面 百花가 滿發한 花園이나 아름다운 田園風景, 밝고 맑은 달, 푸른 바다 등 몸밖의 景致나 事物을 意守할 때는 모두 外景意守에 속한다. 意守는 가볍게, 默默히, 稀微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거기에 마음을 주는 듯하면서도 마음을 주지 않는 듯하고 또 있는 듯하면서도 없는 듯한 그런 상태의 意識 方法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과도한 意守는 執着이나 走火가 惹起됨으로 매우 警戒해야 하며,47)

46) 王 寅 外 : 全揭書 pp.47~50

47) 林厚省 著 임준규 譯 : 前揭書, p.86

이러한 意守의 效果를 더욱 增強시키기 위해 主觀的으로 意守하는 目標과 部位에 대해 항상 끊임없이 追從할 필요는 없으며 特別히 意守를 身體의 어떤 한 部位에 할 때에는 意守 部位의 感覺的인 feedback 作用으로 良好한 意守 效果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意守—feedback—再意守의 科程은 一種의 心理認識의 幫助를 빌리어 進行하는 氣功의 造作技術中的의 하나이다.48)

意念을 練習하는 方法으로 意松法, 局部意念法, 意守法, 意行法等이 있다. 첫째로, 意松法은 大腦皮質層의 調定下에 身體의 局部 혹은 穴位 심지어 모든 身體를 弛緩시키는 것이고 局部意念法은 意念下에 身體의 某部位와 某穴位에 發送한다.49) 둘째로, 意守法은 大腦의 意念하에 身體의 某部位, 某穴位에 지키는 것으로 氣를 丹田에 沈下시켜 丹田의 元氣를 旺盛한 狀態로 維持시키는 것이다.50) 셋째로, 意行法은 大腦皮質의 意念이 體內 運行에 있어 氣가 亦是 運行되는 것은 運氣의 一種의 基本方法으로 具體的인 方法은 意念으로 氣를 經絡을 따라 順行시키고

48) 유아사 야스오(湯淺泰雄) 著 손병규 譯 : 前揭書, pp.138~139 ; 바이오 피드백이란 筋電位, 皮膚電氣抵抗( GSR ) , 脈搏, 血壓 등을 測定하는 바이오 피드백 기계를 使用하여 體內的 生理的 變化를 聽覺이나 視覺의 信號로 變換하고 被驗者가 스스로 그들 作用을 컨트롤하는 方法이다. 氣功의 訓練은 內部 感覺 受容器인 體內 感覺 神經을 통하여 脈搏, 呼吸, 血壓 등을 調節하는 方法이기 때문에 '內的 피드백'이라 부른다. 過度하게 緊張하면 交感神經이 興奮하여 脈搏이나 血壓이 높아져 動作의 리듬이 흐트러진다. 이때에 氣功訓練을 하면 自己 컨트롤에 有用하며, 交感 神經의 興奮을 적당히 낮출 수 있다.

49) 高鶴亭 主編 : 中國醫用氣功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457

50) 上揭書, p.458

한 개의 穴位에서 다른 穴位로 運行시키는 것이다.<sup>51)</sup> 위와 같이 意念을 鍛鍊하여 外氣를 發放하게 된다.患者는 自己의 內氣를 轉換시켜 患者機體의 調節 作用을 일으켜 患者의 抗病能力을 增強시키고 調和順氣, 疏通經絡, 平衡陰陽作用으로 最終의으로는 防病治病, 延年益壽의 作用에 到達한다. 宋朝 張君房의 著述인 《云笈七箋》에서는 《幻眞先生服內元氣訣法》을 引用하여 아래와 같은 記載가 있다. “凡欲布氣與人療病 先須依前人五臟所患之處 取方面之炁, 布入前人身中. 令病者面其本方, 息心靜慮, 始無炁. 布氣訖, 便令咽氣, 鬼賊自逃, 邪氣永絕.”<sup>52)</sup> 布氣와 人間의 疾病을 治療하고자 할 때는 우선 前人の 五臟六腑의 患處를 여러 方面으로 調査한 後 前人の 몸 안에 氣를 發功하는 것이다.

氣功診斷을 하기 위해서 必要한 氣功 修煉에 꼭 必要한 3要素가 있는데 바로 意念, 呼吸, 姿勢이다. 姿勢의 鍛鍊, 呼吸의 鍛鍊, 意念의 鍛鍊을 古代人들은 調身, 調息, 調心이라 稱한 것이다. 氣功은 調心, 調息, 調身을 하여 疾病을 豫防하거나 病을 治療하고 身體를 健康하게 하고 壽命을 延長하고 潛在된 能力을 發顯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一種의 心身 鍛鍊 方法이다. 이 세가지 調節은 氣功 鍛鍊의 基本 方法이다. 調心은 心理活動을 調節하는 것이고 調息은 呼吸運動을 調節하는 것이며 調身은 身體의 姿勢와 動作을 調節하는 것이다.<sup>53)</sup>

그리고 氣功診斷을 하기 위한 基本的인

修練의 過程인 外氣發功의 訓練은 반드시 采氣, 沈氣, 固氣, 運氣, 發氣 等の 段階를 經過하여야 한다. 采氣는 意念下에 外界의 清陽한 氣(天氣, 地氣와 元氣를 混合)를 穴位에 通過시키는 것으로 例로 勞宮穴, 百會穴, 湧泉穴 等으로 人體로 采入시키는 것이다.<sup>54)</sup> 沈氣는 外界의 清陽한 氣를 采入한 後 意念下에 丹田으로 下沈시키는 것으로서 後天의 氣로서 不斷히 消耗되는 先天의 氣를 補充시키는 것이다. 沈氣를 訓練하는데는 基礎의으로 固氣, 卽 意守丹田을 하고 丹田部位의 元氣, 眞氣를 某穴位로 運行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는 例로 手掌의 勞宮穴 或은 脚心의 湧泉穴 등에서 身體의 한 部位, 例를 들면 手指나 兩眼 等に 運行시키는 것이다. 위에서 敍述한 各 段階의 功法訓練을 充分히 한 後에 發氣를 練習해야 한다. 發氣는 意念下에 體內的 元氣, 精微한 氣를 某穴位에서 體外로 發功시키는 것이다.

上述한 5段階는 氣功外氣發功의 基本要領을 練習하는 것으로 概括하면 由淺入深하고 이런 過程을 完成한 後에 반드시 刻苦의 努力과 長期間의 功法訓練을 거쳐야 外氣를 發出할 수 있는 것이다. 外氣를 意念으로 經絡들이 運行하는 길로 通過하면 힘이 있고 安全하며 氣血이 運行하는데 有利한데, 또 發出하는 外氣가 強하면 方向이 正確하다. 外氣運氣를 잘하기 위해서는 意念을 鍛鍊하는 것이 重要한데 氣는 意를 따라 行하고 意는 氣를 따라 行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便하게 하는 것이 入靜의 初步段階로 우선 意守丹田하여 쉽게 意念으로 氣를 다스리고 意念에 따라 氣를 運行시키는 것이다.<sup>55)</sup>

51) 上掲書, p.458

52) 上掲書, p.459

53) 박종관 : 中國輕氣功, 서울, 書林文化社, 1992. p.60

54) 高學亭 注編 : 前掲書, p.454

55) 王寅 編著 : 全掲書, pp.47~50

具體的으로 他人의 氣를 느끼는 方法은 우선 氣功 訓練을 充分히 해서 특히 손바닥의 氣感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런 뒤에 에너지 狀態가 高潮된 오른손바닥을 他人의 왼손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다음은 意念을 集中해서 漸漸히 接近했다가 떨어졌다 하거나, 患者의 손위에서 돌린다. 相對方의 呼吸에 맞추듯이 하면 周波數가 맞은 듯이 어느 時點부터 강한 氣感을 느끼게 된다. 癢痒感, 熱感, 清涼感, 壓力感 등이다. 또 自己만이 아니라 相對도 이쪽의 氣의 움직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訓練을 繼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氣에 대한 感受性은 漸漸 더욱 強해진다. 相對方 몸의 部位에 의해서 反應이 상당히 다르다. 더운 곳, 찬 곳, 壓力이 느껴지는 곳, 빨려 들어가는 곳, 또 더 敏感한 사람은 아픈 곳, 癱痺된 곳 등에 內在하는 邪氣의 感覺을 손바닥이나 自己 몸의 內部에서 느끼곤 한다. 被施術者는 施術者의 손바닥이나 몸이 自身의 몸 가까이 와 있는 동안 따뜻하거나, 氣分 좋은 感覺을 느끼나 自身의 몸에서 안 좋은 部分은 癱痺되거나 떨리는 듯한 感覺을 가지게 된다.<sup>56)</sup>

#### (4) 氣功診斷法 修練時 注意事項

氣功診斷의 高級過程인 天目開發 修練은 基礎가 안된 狀態에서 天目開發만을 爲主로 하여 修練하게 되면 副作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段階에 따라 차근차근 修練하여 精, 氣, 神이 調和롭게 充足되면서 自然스럽게 열려져야 한다. 瞳子長壽九步功의 開功段階에서, 百會를 통해 햇빛, 달빛 또는 여러 光色의 빛이 몸 안으로 흘러들어와 全身의 內部를 비추

고, 또 그 빛이 天目を 통해 밖으로 내비추어져 다시 배꼽을 통해 全身으로 들어가는 등의 想像修練은 바로 百會와 天目, 그리고 腦속의 송과선에 氣가 모이게 하여 特異功能을 開發하는 修練法이기도 하다. 이 修練은 呼吸과 더불어 下丹田에 연꽃이 피었다 오무러졌다 하면서 宇宙의 各種 正氣와 情報가 몸안에 培養되고, 아울러 全體 毛孔이 開闔하는 것을 함께 意念하고 想像 修練함으로써 人體의 모든 細胞가 새로운 生命력을 얻게 되고 功能과 智慧가 커지게 되어 自身의 疾病治癒는 물론 他人의 疾病도 治癒케 할 수 있는 能力을 얻게 된다.<sup>57)</sup>

氣功診斷의 修練이 一定한 水準에 到達하게 되면 意識은 더욱더 사라져 가고 純粹한 狀態에 가까워져서 이른바 “있으면서도 없는 듯하고”, “意識하고 있는 듯하면서도 意識하고 있지 않는” 恬憺虛無의 狀態에 한 걸음 한걸음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練功하여 無空의 境地에 들어선다고 해도 그 虛無는 絕對的인 것이 아닌 相對的인 것이어서 意念이 身體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때 昏睡 또는 制御喪失 등의 弊害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sup>58)</sup>

### 3. 氣功진단법의 분류

參考文獻들을 통해 살펴본 바 氣功診斷法의 種類에는 크게 接觸해서 診斷하는 경우와 接觸하지 않고 診斷하는 경우로 區分할 수 있는데, 이를 具體的으로 分類해보면, 體感診斷, 內觀法, 透視法, 念力診察法, 振動子法, 意感法, 遙感法, 觀氣

57) 윤금선 : 最新 氣功科學의 精粹, 서울, 發行處 韓國 精神科學學會, 1998, pp.217~219

58) 林厚省著 : 前掲書, pp.88~89

56) 김재은 : 前掲書, pp.268~272

法, 知能氣功, 六神通, 接觸 氣感應 診斷法이 있는데, 다음에 이 診斷法들의 原理와 特性 및 修鍊方法들에 대해 提示하는 바이다.

### 1) 無接觸 氣感應 診斷法

#### (1) 意義

大部分의 氣功診斷法이 여기에 該當하며, 無接觸 氣感應 診斷은 患者의 몸에 施術者의 몸을 접촉하지 않고, 施術者와 떨어져 있는 患者의 症勢를 診斷하는 方法이다. 이 診斷 原理도 物理學的으로 證明된 것은 아니나, 經驗에 의한 假設이지만 練習을 거듭하는 동안에 正確한 診斷을 내리게 될 것이다.

#### (2) 方法

가) 患者를 施術者 앞에 앉게 한 후, 약 30초 후에 施術者는 右側 눈으로 患者의 左側 눈을 응시하고, 左側 눈으로 患者의 右側 눈을 응시한다.

나) 右側 눈으로부터 患者의 左側 눈으로 강한 氣運을 注入한다.

다) 마음속으로 注入한 氣運이 患者의 몸을 돌아 左側 눈으로 들어오면, 그 瞬間에 患者의 症狀을 느낄 수 있다. 즉 施術者와 患者와의 氣의 交流가 이루어졌을 때 施術者의 몸에서 患者의 症勢가 있는 部分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sup>59)</sup>

### 2) 體感診斷 60)

#### (1) 意義

意念을 통해서 醫師와 患者가 主客一致의 상태에 이르러 患者의 病處를 診斷하는 方法이다. 患者의 기운을 醫師의 몸

전체, 또는 손바닥으로 끌어들이어서 느껴지는 感覺으로 患者의 상태를 파악한다. 患者의 몸 속에서 進行되고 있는 狀態를 診察者가 感覺으로 그대로 傳達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診察法보다 正確하다.

#### (2) 方法

예를 들어 手感診斷法은 醫師가 한 손바닥이나 양 손바닥을 患者의 몸 위 10~15cm에 올려 놓고 천천히 손을 患者의 몸 위에서 움직이면서 勞宮穴에서 느껴지는 感覺으로 疾病이 있는 部位 및 疾病狀態를 把握하는 것이다. 患部에서 느껴지는 感覺은 熱感, 冷感, 痲脹感, 鍼刺感 등이 있다. 손은 매우 複雜한 筋肉이나 關節로 되어 있고, 複雜한 筋肉과 힘줄의 運動 메카니즘에 의해서 屈伸이 가능하다. 캐나다의 世界的 大腦 生理學者인 Penfield가 만든 '運動野地圖'를 보면 입, 손 등 아주 많이 活動하는 部分을 관장하는 腦의 表面의 넓은 것으로 되어 있다. 腦의 領域이 넓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腦에서 手指領域의 細胞數가 많다는 말이고, 手指의 複雜한 運動에 對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手指는 腦의 延長이라고 말한 學者도 있다. 發達의 程度로 보더라도 손의 發達과 뇌의 發達은 깊은 關係가 있다. 아기는 出生後 3년이 지나면 豫測하는 知的 能力이 생기고, 이 能力을 使用하면서 同時에 손을 쓰게 된다. 손가락의 움직임과 並行해서 大腦에 있는 손의 運動野 神經原의 樹狀突起가 늘어가는 것이다. 손을 쓴다고 하는 것은 손의 運動野의 樹上突起의 시냅스를 活動시키게 되어 腦의 發達을 促進하게 한다. 손은 눈의 役割을 代身하기도 하는데, 盲人들의 손의 觸覺을 一般人보다 銳利하다. 손에는 冷覺·痛覺·觸

59) 장동욱·정훈섭 共著 : 前掲書, pp.224~230

60) 이은미·박은정·유창순 : 前掲書, p.157

覺·壓覺·振動覺 등의 感覺 受容器가 集中되어 있어 外界의 刺戟에 아주 敏感하다. 손은 身體의 다른 部分에 비해서 機械的 刺戟에 敏感하며, 東洋 醫學의 診斷에서도 손으로 患者의 脈을 보고 患者의 狀態를 把握하는데 重要한 구실을 하였다. 人體의 손끝 부위는 氣가 흐르는 經路인 “經絡”의 起始 혹은 終止部이므로 人體의 全體的인 氣의 變化를 가장 잘 反映하게 된다. 이러한 事實로 미루어보아 氣功이나 다른 診斷에서도 손의 重要性을 疑心할 餘地가 없다.<sup>61)</sup>

### 3) 內觀法

#### (1) 意義와 方法

마음속으로 어떤 現狀을 생각하고 그러한 現狀이 실지로 일어난다고 행각한 후에 그것이 現實로 보이는 것같이 觀察되는 것을 말한다. 즉 自身の 精神狀態와 그 動作을 內面的으로 觀察하는 것이다. 《健康과 氣功》에서는 ‘內景’에 관하여 ‘內景이라 함은 靜坐 중에 일어나는 身體上의 異變을 말한다. …… 幻想 - 이것은 눈 속에 사람의 얼굴이나 꽃, 光景 등이 보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現狀이다. 이것도 潛在意識이 表面化 된 것으로 雜念이 象徵化 된 것이다.’라 하였다.<sup>62)</sup> 《大成捷徑》의 煉氣化神의 過程 중에는 內景을 위한 첫 過程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內觀이다. 이에 대하여 解題에서는 ‘初心者들에게 이 下丹田의 에너지 센터인 氣穴의 位置가 正確하게 잡히지 않는데 오래도록 下丹田에 意識을 集中하다 보면 玄關중의 하나인 이

곳이 內觀으로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 (2) 原理

內觀 現狀이 일어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原理가 있다. 그것이 隨意原理와 想念原理이다. 隨意原理는 우리가 活動하기 위해서 우선 自己 身體를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自身の 몸을 자기 意志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理致를 말한다. 想念原理라고 하는 것은 人間의 想念에 의해서 어떤 現狀을 일으키고 그 現狀을 支配하는 理致를 말한다. 內觀法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雜念을 除去하여 스스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姿勢에서 이루어 진다.’라고 하였다.<sup>63)</sup>

### 4) 透視法<sup>64)</sup>

#### (1) 意義

透視法은 天目<sup>65)</sup>이 열려야 가능한 診斷法이다. 먼저 눈을 감고 혹은 감지 않고 意識으로써 病者의 內臟의 形狀을 살펴보는 것이다. 醫師의 功力이 높을수록 正確도가 높아진다. 病이 없는 部位는 투명한 빛이 나타나고 病이 있는 部位는 흐리거나 검은 색의 영상이 나타난다. 이 意念透視의 速度가 빠를수록 透視의 正確率이 높다고 할 수 있다. 人體의 透視, 그것은 天眼功의 一部 內容인데, 天眼功이라는 말은 佛家功에서 나온 것이다. 佛家は 禪안공의 段階를 5段階로 나눈다. 즉 肉眼功, 慧眼功, 法眼功, 佛眼功, 天眼功

63) 上揭書, pp.159~165

64) 段逸山 主編 : 醫古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23 ; 《史記 扁鵲倉公列傳》에 의하면 “視見垣一方人 以此視病 靈見五臟癥結 特以診脈爲名耳”이라 하여 透視法이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5) 李遠國 : 中國道教氣功養生大典, 四川省, 四川辭書出版社, 1992, p.115 天目은 ‘收心內視之要處’이다.

61) 김재은 : 前揭書, pp.278~279

62) 韓國仙道學會 編譯 : 健康과 氣功, 서울, 出版社 명지사, 1996, pp.108~110

이 그것이며, 段階別로 次元이 높다. 道家는 천안공을 開天目이라하여 부르는 法이 다르지만 實際 內容은 氣功상 비슷하다. 天眼功은 3개 部分으로 나누어 제1部分은 內視이고, 제2部分은 透視이며, 제3部分은 僚視이다. 內視는 自身을 修煉할 때 自己의 體內를 返觀하여 內視하는 것을 가리킨다. 氣가 自己 內部에 運行함을 볼 뿐 아니라, 또한 五臟六腑와 骨格 各 方面의 狀況을 볼 수 있다

## (2) 方法

印堂을 통한 透視는 兩眉間에 위치한 印堂穴에 氣를 집중시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인데, 이때 緊張되지 않은 狀態로 印堂에 氣를 끌어모은 후, 無念의 狀態로 數千 里 밖의 事物도 볼 수 있다는 說이다. 66) 《內功·養生術全書》에서는 天心은 兩眉 中間에 자리하고 있고 日月이 그것을 양쪽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日月이라는 것은 양쪽 눈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天心을 鍛鍊하려면 곧 두 눈을 가볍게 감고 回光返照를 하여 直接 印堂을 비치어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오래동안 鍊磨하면 빛이 그곳에 모이고 天心이 나타나고 玄關이 저절로 열린다고 한다.

## (3) 種類

透視는 3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째는 人體透視이고, 둘째는 地下隱藏物 透視로서 風水地理 등이며, 셋째는 隔裝透視이다.

人體透視는 옷을 벗지 않은 狀況에서 天眼功으로 속을 보는데 表皮, 五臟六腑, 骨格, 등 각종 狀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隱蔽物 透視는 地下에서 平常時에 우리가 肉眼으로 볼 수 없는 物件을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例를 들면 鑛山을 찾아낸 다든지 地下에 埋葬된 貴重品을 찾아내는 것이다.

隔裝透視는 한 쪽에서 相對便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몇 개의 空間을 건너서도 모두 볼 수 있는 一種의 僚視功能이다. 67)

## 5) 念力診察<sup>68)69)</sup>

### (1) 意義

念力診察은 生體의 氣波를 통해 診察者와 患者가 一致되어 患者의 病處를 診察하는 것인데, 고도의 修練을 하게 된 後에는 氣質的인 病 뿐만 아니라, 機能的으로 안 좋은 것까지도 診察이 可能한 方法이다. 腦波가  $\alpha$ 水準이나  $\theta$ 水準으로 내려가서 念力 診察을 하는 데, 크게 頭腦와 臟腑와 四肢로 區分하여 診察하며 本格的인 診察에 앞서 豫備 修練法에 熟達되어 있어야 한다. 念力診察法은 念力을 통해서 診察者가 患者와 主客一致의 狀態에 이르러 患者의 病處를 診察하는 氣功 診斷으로 患者의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機能變化까지 把握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診察法보다 病의 前兆段階에서 診察이 가능한 豫防醫學的 性格을 띠고 있다. 또한 內臟器官뿐 아니라 頭腦까지 同時에 診察할 수 있기 때문에 診察이 綜合的이고, 頭腦部位에서 비롯되는 各種 精神神經系統의 診察도 쉽게 할 수 있다.

### (2) 修練方法

가) 腦波를  $\alpha$ 水準이나  $\theta$ 水準으로 내

67) 서용규 著 : 道通氣功, 서울, 圖書出版 문인 북, 1996, pp.30~32

68) 장동욱·정훈섭 : 前掲書, pp.383~386

69) 양요한 : 前掲書, pp.191~192

66) 장동욱·정훈섭 共著 : 前掲書, pp.390~392

린다.

나) 自身の 身體뒤에, 虛象인 自身の 모습을 생각한 후 頭腦, 頸椎, 胸椎, 腰椎, 骨盤, 四肢 등의 순으로 肉體의 解剖學的 構造를 觀察한다. 즉 自身을 客體와 虛像으로 區分하여 修練한다.

다) 印堂을 통해 客體인 自身の 實體 身體와 主觀的 對象인 虛象을 볼 수 있다.

즉, 氣修練을 통해서 自身の 身體感覺을 잊고 氣의 感覺만을 느끼게 될 때 自己를 둘러싸고 있는 氣의 波長속에 患者의 身體感覺을 收容하여 그 苦痛部位를 把握할 수 있다.

이 修練을 통해 實在하는 自身の 身體感覺을 意念을 통해 空間 移動함으로써, 자신의 身體를 잊고 他人과 自身の 主客一致를 이루며 自身の 實際的인 身體感覺에서 오는 混同을 벗어나 相對方의 實際 身體가 지닌 生體反應과 共感함으로써 診察이 가능해진다.

## 6) 振動子診斷法

### (1) 意義

生體物理學的 效果法이라는 名稱下에 普及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바늘占, 지팡이占, 錘占 등으로 알려져 있고 불란서에서는 라디에스테지라 하여 放射磁力이 物體에서 나와 錘나 나뭇가지에 生體物理學的 效果를 준다하여 이를 活用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錘를 pendule이라 하고 Y字形 나뭇가지나 金屬製品를 Baguette이라 불린다. 점술봉 探知 裝置를 Aura Meter이라 하는데 이것은 7000年 以前서부터 人類가 使用한 것으로 점술봉이나 錘를 사용해서 水脈 찾기, 地下의 鑛物, 숨겨진 寶物, 잃어

버린 物件 등을 探知해 내는데 活用되고 있다. 探知 能力은 男子보다는 女子가 두 배 정도의 感受 能力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70% 에서 80 %정도가 평소에도 感知가 잘된다고 하며 나머지 사람도 정신집중이나 弛緩 등의 修練을 통해서 探知 能力이 향상된다고 한다.

振動子法은 氣가 振動子를 통해 흘러들어가서, 測定되는 對象의 미약한 氣의 變化를 측정하는 것이다. 雜念이 없는 無意識의 상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對象의 氣波를 파악해야 한다.<sup>70)</sup> 그러므로, 冥想 氣功 등을 통해서 氣의 修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無我的 狀態에서 振動子에만 意識을 모을 수 있는 勞力이 必要하다.

### (2) 使用法

錘의 경우는 錘의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錘에서 6~15cm 정도의 길이로 엄지와 검지 및 中指로 끈을 잡고 마음을 安定시켜 意識을 잡는 손가락의 끝과 끈에 두어 自己 心臟의 拍動을 손끝에서 脈搏으로 느낄 때 어느 정도 腦波와 念波의 筋肉이 맞는 것이므로 이때에 質問을 하는 것이다. 可動中 意識을 錘에 두지만 결국은 宇宙와 自身이 合一될 때에 反應이 잘 일어나게 된다. Y字形 探查錘이나 L字形 探查錘은 특히 水脈에 있어서 確認에 뛰어난 反應이 있으나 사람의 疾病의 診斷이나 未來銳智나 過去의 소급인지를 해 볼 때에는 錘가 유리하다. 振動子法이 熟達되면 探查錘나 錘를 사용하지 않고, 손의 氣느낌으로 判斷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잘되면 마음의 느낌으로 알 수가 있고, 이의 發展으로 透視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振動子法의 活用時 항상 더

70) 이은미·박은정·유창순 : 前掲書, p.157



向上市키려는 勞力으로 보다 높은 次元의 領域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sup>71)</sup> 基本 姿勢에서 振動子를 쥘 때 안정된 자세를 갖추고 呼吸을 고르게 하여 팔이나 손결에 의해 振動子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쪽 손을 振動子 권 손에 받치는 것도 좋은 方法이다. 여기서 注意할 점은 엄지와 검지의 안쪽으로 振動子를 가볍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振動子의 고리를 손가락의 側面에 걸쳐 되면 손가락에 흐르는 陰陽氣의 中和로 振動子는 움직이지 않게 된다. 以上과 같은 訓練을 反復하게 되면 振動子를 使用할 수 있는 基本姿勢가 마련된다. 이러한 振動子 診斷法은 이를 바탕으로 한 念力診斷 및 陰陽脈 診斷과 함께 使用하면 더욱 正確度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sup>72)</sup>

腹部募穴診斷을 예로 들면, 精神을 集中하고 12臟腑의 募穴위에서 皮膚에 닿지 않게 가만히 들고 있으면 實證인 募穴위에서 振動子가 圓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이것을 보고 臟腑의 虛實을 알 수도 있으며 또한 體質을 鑑別하는 데 利用되기도 하고 適合한 處方을 鑑別하는 데 活用한다. 이 외에도 振動子를 韓醫學에 應用할 分野는 無窮無盡하며 振動子는 氣功診斷法의 基礎테크닉이 되기 때문에 매우 重要하다.<sup>73)</sup>

## 7) 意感法

醫師가 먼저 患者의 整體의 形狀을 관찰한 후, 마음속으로 患者의 形狀의 輪廓

을 想像한다. 患者의 形狀이 나타나면, 그 안을 한층 더 깊이 想像한다. 일반적으로 疾病이 있는 部位에는 검거나 혼탁한 색이 나타난다. 이것으로써 病處 및 病的 性質을 파악할 수 있다.<sup>74)</sup>

## 8) 遙感法

먼 距離에 있는 患者를 診斷하는 方法이다. 患者의 이름이나 사진 혹은 소지품을 媒介로 하여 患者의 氣場을 把握한다.<sup>75)</sup>

## 9) 觀氣法

### (1) 意義

觀氣法은 呼吸중의 呼氣와 吸氣의 변화에 맞추어 한 部位 또는 한 穴位로부터 다른 部位나 穴位로 意念을 옮겨가는 方法이다. 예를 들면 高血壓症患者는 吸氣할 때 丹田을 意守하고 呼氣할 때는 湧泉穴을 意守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吸氣와 呼氣에 따라서 意念을 다른 部位나 穴位로 轉向시키는 方法을 貫氣法이라고 한다.<sup>76)</sup> 觀氣法은 身體의 한 部位 또는 經穴에 집중시킨 주의력을 일정한 路線을 따라 다른 부위로 이동시킴으로써 氣의 흐름을 유도하는 方法이다. 身體의 어느 부위를 貫氣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部位 어느 通路에 氣의 停滯가 있으며 어느 臟腑의 機能을 강화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sup>77)</sup>

六妙法門이란 調息法의 일종이다. 거기에는 1. 數 2. 隨 3. 止 4. 觀 5. 還 6.

71) 이상명 : 氣科學, 서울, 대광出版社, 1996, pp.291~302

72) 양요한 : 前揭書, p.213

73) 박수호 : 奇經治療法, 臟腑虛實을 中心으로 본 韓醫學的 診斷法, 서울, 1998, pp.131~132

74) 이은미·박은정·유창순 : 前揭書, p.157

75) 上揭書 : p.158

76) 윤나다·김경호 : 大韓氣功醫學會誌 제2권 제2호 近代氣功에서의 意念法, 서울, 發行處 大韓醫療氣功學會, 1998, p.38

77) 林厚省 著, 林準圭 譯: 中國氣功, 北京, 保健新聞社, 1987, pp.94~95

淨 이라는 여섯가지의 내용이 있다. 그 중에서 觀은 觀息을 말한다. 가늘고 미세한 숨결의 출입이 심중에서 확인되어 온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중의 바람이 실제로 그쳐 無風狀態가 된 것과 같이 된다. 이 방법을 오랫동안 훈련해 나가면 心眼이 열리고 呼吸의 出入을 철저히 볼 수 있고 氣가 全身을 循環하게 된다.

## (2) 方法

醫師가 入靜狀態에 들어간 다음, 눈으로 病者의 몸 주위를 관찰한다. 患者는 먼저 몸과 마음을 弛緩시키고, 雜念을 없앤 狀態에서 病處에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醫師는 意守上丹田을 해서 神을 保護하고 放出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病者의 몸 주위에서 病者가 방출하는 氣를 능히 관찰할 수 있다. 그 色彩는 다음과 같다. 肝氣는 青色, 心氣는 赤色, 脾氣는 黃色, 肺氣는 白色, 腎氣는 자주색, 膽氣는 藍色, 건강한 氣는 맑고 투명하며, 病氣는 검고 흐리다.<sup>78)</sup>

## 10) 特異功能에 의한 診斷法

### (1) 意義

特異功能이란 具體적으로 人間과 物體의 사이에 생기는 電磁波로 表現되는 作用이다. 特異功能 중에서도 特異感知라고 불리는 영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結論이 얻어지고 있는데, 그 結論이란 人間이 物體를 향해서 電磁波를 發하고 物體가 情報를 되돌려 보내면, 大腦가 이 情報를 알아차리고 處理한다고 하는 것이다.<sup>79)</sup>

즉, 이 診斷法은 人間에게 內在되어 있는 潛在能力을 開發하여 現實로 나타나게

되는 뛰어난 能力을 가능하게 하는 氣功으로 주로 超能力的인 現狀을 일으키며 이를 診斷에 應用하는 것이다. 그러나, 氣功에 基礎해서 말한다면, 氣功과 特異功能은 根本은 같은 것이며, 氣功은 特異功能을 觸發할 수가 있고, 特異功能은 氣功의 鍛鍊을 必要로 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氣功과 特異功能은 모두 人體科學의 範疇에 屬하며, 最近에 와서야 研究가 始作되었다.<sup>80)</sup>

特異功能과 氣功功能은 인체 자신의 機體에 指令을 내리는 意識에는 同一한 立場에 있으나 단, 그 作用對象인 즉 機體의 感受 靈敏度를 提高해야 할 뿐만 아니라, 機體의 周圍環境에 대한 超常作用을 包括해야 하는 것이다. 前者를 ESP功能<sup>81)</sup>이라고 하고 後者를 PK功能<sup>82)</sup>이라 칭한다. 特異功能의 機體작용은 氣功功能에 비해서 크다. 客觀的인 현상은 氣功功能에 비해서 顯著하여 或者는 特異功能을 氣功功能의 高級段階라고 主張하기도 한다. 두 가지 모두 다 理論價値와 研究價値가 매우 높다. 人類의 스스로의 身體에 대한 認識은 아직은 完全치 못하다. 인체의 潛在能力이나, 特殊功能은 아직 解決되지 않아 或者는 完全한 解釋은 不可能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科學的方法을 이용한 觀察과 實踐을 통하여 歸納하여야 하며 盲目的인 追從이나, 輕率한 否定은 適切하지 못하다. 반드시 앞으로의 여러 가지 難關은 克服해야 할 것이다.<sup>83)</sup>

80) 김재은 : 前揭書, p.258

81) Extra Sensory Perception 超感覺의 知覺, 텔레파시, 透視.

82) Psychokinesis 念力, 精神의 物質 支配能力.

83) 柳元亮 外1人 主編 : 前揭書, pp.36~37

78) 이은미 · 박은정 · 유장순 : 前揭書, pp.158

79) 유아사 야스오 : 前揭書, pp.255~256

(2) 種類

代表的인 것으로 석가모니가 6년여의 苦行 끝에 터득하였다고 하는 六神通이 있다.

① 天眼通

透視力으로 實際를 보지 않고서도 벽 뒤에 있는 事物을 알아 맞히거나 책갈피 속의 物件을 直接 들여다보듯이 形狀이나 形體를 分問할 수 있음

② 天耳通

透聽力으로 聽覺을 發達시켜서 상당히 먼 距離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며 그 位置까지도 밝혀 낸다고 함

③ 他心通

讀心術로 相對方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남의 생각을 모조리 看破해 내는 能力을 向上시켜 미리 準備하게 해주는 能力을 말함

④ 宿命通

豫知力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알게 되거나 前世의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能力을 말함.

⑤ 神境通

縮地法으로 時空을 超越해서 움직이는 形狀으로 몸의 크기를 調節하거나 걸음이 매우 빠르게 되어 마치 날아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能力을 말함

⑥ 漏盡通

精蓄法으로 神通力을 가졌다고 하여 여 기저기 드러내지 않고 고요하게 안으로 다스려 惑世誣民하지 않으며 精이 전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能力을 말함<sup>84)</sup>

11) 接觸 氣感應 診斷法

(1) 意義

接觸 氣感應 診斷法이란 患者의 몸에 손을 대고 患者의 氣를 느낌으로서 病을 診斷하는 方法이다. 東洋醫學에서는 天氣, 地氣, 人體의 氣가 서로 交流하고, 西洋醫學에서는 宇宙의 磁氣, 人體의 磁氣가 서로 交流한다고 한다. 東洋에서는 外邪가 몸에 侵入하여 陰陽의 均衡을 잃은 것을 病으로 본다. 外邪는 곧 外部의 邪氣를 말한다. 人體에는 陰陽의 兩極이 存在하는데, 이 兩極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制壓하는 不均衡 狀態가 되면 病이 되고, 均衡있게 調和를 유지하고 있으면 健康 狀態인 것이다. 磁氣理論에 의한 接觸 氣感應 診斷은 施術者의 오른손으로 患者의 왼손을 잡고, 施術者의 왼손으로 患者의 오른손을 잡고, 施術者는 오른손으로부터 患者의 왼손으로 治癒氣를 發射시켜 患者의 몸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氣가 患者의 오른팔로 移動하여 施術者의 왼손을 통해 腦로 들어옴으로써 症勢를 느끼게 되는 方法이다. 즉, 磁氣는 같은 것끼리는 排斥하고, 異質的인 것끼리는 서로 끌어 당긴다는 自然의 法則을 利用한 것이다. 그러나 이 診斷原理는 物理學的으로 證明된 것은 아니며, 아직은 經驗에 의한 假說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sup>85)</sup> 예를 들면 어떤 臟腑에 實證의 病變이 있으면 반드시 그와 關聯있는 體表의 經絡에 反應이 나타난다. 그 反應은 여러 가지 形態로 나타날 수 있는데 壓痛點, 硬結, 皮膚色澤의 以上, 溫度感覺의 異常, 各種 皮膚疾患 等等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經穴을 눌러서 나타나는 壓痛點은 經絡의 虛實을 살피는 重要한 診斷法인 同時에 治療가 올바로 되었는지를 確認하는 指標가 되기

84) 홍성균 編著 : 疾患別 氣功治療學, 서울, 圖書出版 大學書林, 1998, p.32

85) 장동욱 · 정훈섭 共著 : 前掲書, pp.226~230

도 한다.<sup>86)</sup>

#### (2) 方法

가) 患者를 施術者 앞에 앉게 한 후에, 약 30초 후에 施術者는 자기의 양 손의 食指를 患者의 太淵에 가볍게 댄다. 이렇게 하면 施術者와 患者의 사이에 氣의 循環路가 형성된다.

나) 施術者는 精神 집중을 하고, 마음을 비운다.

다) 오른쪽 손의 食指끝으로부터 患者의 몸 속으로 강한 氣가 들어가고 있다고 意念을 가지고 氣를 注入한다.

라) 注入한 氣가 患者의 몸을 돌아 왼손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 患者의 症勢를 느끼게 된다고 意念을 한다.

마) 施術者와 患者와의 氣의 交流가 이루어졌을 때, 施術者의 몸에서 患者의 症勢가 있는 부분이 쭈시거나, 아프거나, 熱感을 느끼거나, 寒感을 느끼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 여러 가지 症勢를 느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診斷을 내린다.

### 4. 現代의 氣功에 대한 多樣的 研究

氣功診斷法에 대한 現代科學的인 認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氣功診斷을 새롭게 解釋하고 다양한 應用에 큰 도움이 되므로 이에 現代의 文獻들을 參考로 하여 살펴본 結果를 다음에 提示한다.

오늘날 氣의 科學的研究에는 東洋의인 패러다임이 現代의 科學文明과의 衝突에서 그 整體性を 찾아가는 側面과 現代科學文明이 原子論을 바탕으로 한 還元主義의 限界를 突破하려는 自救策의 실마리가

된다는 側面이 있다. 西洋에서도 이러한 '氣'와 類似的한 概念이나, 實際的인 文化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단 그러한 言語들은 西洋의 科學文明에 의해서 많은 部分들이 蠶食되어 왔고, 現實生活에서 漸次的으로 普遍妥當性を 잃어 갔다. 總體的으로 보면 氣功을 研究하는 過程中을 物理的으로 測量하는 方法이 聲, 光, 電, 磁石 等の 各個 領域이 普及되어 先進的인 測量體系를 채용하고 있으나 資料를 찾아 보면 아직 적고 實驗의 重複 回收도 많지 않아 어떤 肯定的 結論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大量의 基礎物理 測定法을 進行하여 氣功의 效應에 대해 全面的인 認識을 進行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현재, 氣功의 氣가 갖는 物質性を 證明하기 위하여 中國科學院, 國家科學委員會, 中國科學協會, 衛生部, 國家體育委員會는 著名한 과학자 600名을 招請하여 1978년 7월 15일과 19일에 各各 別途로 北京 서완빈관에서 現場鑑定測定을 實施한 바 있다. 이 鑑定에서도 氣功의 氣에 一定한 物質性이 있음을 證明하고 있다.<sup>87)</sup> 이러한 氣의 科學的 測定以後 氣功의 現代의 研究가 進行되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作用들이 科學的 論據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그러한 結果에 힘입어 많은 氣功에 대한 研究가 活發하게 進行되어 가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西洋科學의 限界를 克服하기 위한 氣의 哲學的 研究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氣功分野는 科學部門에서 氣功外氣로 韓醫學의 한 部分으로 包括되며 이

86) 박수호 : 奇經治療法, 臟腑虛實을 中心으로 본 韓醫學的 診斷法, 서울, p.130

87) 全永光 : 探究해 본 氣의 世界, 韓國精神科學學會 97秋季大會 및 제1회 國際氣科學學術大會 論文集, 서울, 發行處 韓國精神科學學會, 1997, pp.186~191

로 인해 韓醫學의 氣血, 陰陽, 經絡, 臟腑 등의 基本理論을 이룬다. 그러나 한편 外氣治療에 대해서는 心理的인 暗示作用의 結果가 아닌가 하는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그래서 氣功外氣의 客觀的 效果를 確認하기 위해 쥐, 토끼 양 등의 動物을 利用하여 生理, 免疫 등의 分野에서 實驗을 實施한 結果 未知의 物質이나, 生物體 및 試驗管 內部的 살아 있는 組織이나 活性 物質에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作用하여 여러 가지 生理的 效果를 미치고, 免疫 및 新陳代謝의 機能에 變化를 일으킨다는 事實이 證明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人體內部를 둘러싼 內氣와 마찬가지로 培補元氣, 平衡陰陽, 通經活絡의 作用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up>88)</sup>

그런데, 지금까지 開發된 대부분의 診斷用 醫療機器들은 人體의 異常與否를 器質的인 病理變化가 생겼을 때야 비로소 測定 可能하므로 “未病”의 段階 즉 氣的인 變化만 생긴 狀態에서는 無用之物인 것이다. 氣에 대한 새로운 研究의 對象이 된 오라는 人體에서 放射되는 色光線으로서 1939년 蘇聯의 電氣 기사 세미온 킬리안이 發明한 特殊한 사진기로 撮影되어 그 存在가 確認되었다. 킬리안 사진기는 一種의 오라 放電 撮影機로서, 찍고자 하는 物體에 高壓을 걸어 放電을 시킬 때 發生하는 白色 影像에 그 物體의 에너지 狀態가 反映된다고 한다. 이 裝置의 特徵은 高周波 高電壓을 被寫體에 가까이 가져갈 때 일어나는 發光現象을 필름에 그대로 感光시키는 것으로서 普通의 사진기와는 달리 렌즈가 전혀 없다. 여기서 出發하여 나중에는 顯微鏡에 高周波 高電壓 電極을

附着하여 작은 被寫體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程度로까지 發展하였다. 이들은 여러 가지 物體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본 結果 生體의 狀態에 따라 사진의 映像이 얻어지는 狀態, 즉 밝기나 색깔, 形態 등이 다르다는 것을 發見하였다. 킬리안은 자신의 손가락 주위에서 發光되는 빛을 觀察하면서 사진을 찍고 몸의 狀態 變化가 겉으로는 感知되지 않아도 이 빛에서는 身體의 異常에 대한 情報가 發病하기 前에 미리 나타난다는 事實을 發見하였다. 오라 放電 撮影技術은 初期에는 生體의 健康狀態를 感知하는데 活用하였으나 研究가 進行되면서 그 內容이 보다 多樣하고 纖細해지기 始作하였다.<sup>89)</sup> 또한, 오라는 여러 가지 機能이 있다고 報告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으면 오라를 自己 自身의 健康에 利用할 수 있고, 他人의 診斷 및 治愈에도 應用할 수 있다. 그리고, 오라는 三段階로 放射되고 있는데, 1段階는 black space로 이는 皮膚表面에서부터 0.2~8mm 까지의 空間이며 이 空間에서는 오라가 보이지 않는다. 2段階는 內部 오라層으로 이 부분은 black space로부터 약 10cm까지의 두터운 오라층이다. 3段階는 내부 오라層의 외측에서 밖으로 약 30cm까지의 얇은 外部 오라층이다. 즉, 오라는 몸 밖으로 放射되고 있어서 서로 近接해 있을 때는 서로 상대面에 影響을 주게 된다. 이러한 오라의 色彩는 健康狀態를 反映하기 때문에 患者와 마주 앉아 있을때와 健康한 사람과 있을 때의 感覺이 各各 다르게 된다. 따라서

88) 유아사 야스오編 손병규譯 : 前掲書, pp.212~220

89) 김동렬, 김재우, 박정만, 서대현, 신연호, 박병운, 유상구 : 코로나 放電撮影을 利用한 韓醫學의 臨床診斷 研究, 서울, 發行處 韓國精神科學學會, 1998, pp.102~115

患者와 가까이 있게 되는 醫師는 쉽게 疲勞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90)

그런데, 現代醫學의 診斷技術은 一般의 으로 直接 患部를 測定하는 方法으로 疾病이 發生한 以後에 人體의 疾病 狀態를 確認하는 것을 主從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오라 放電 攝影技術은 人體의 에너지 狀態를 撮影하는 技術이어서 韓醫學의 原理와도 概念的으로 잘 一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라 放電 攝影 技術을 韓醫學의 立場에서 再解釋할 수 있는 研究를 바탕으로 韓醫學의 診斷方法으로 開發하는 것은 대단히 重要하다.91)

그리고, 氣功의 科學的 研究對象中 重要한 部分인 特異功能과 氣功功能은 人體 자신의 機體에 指令을 내리는 意識에는 同一한 立場에 있으나 단, 그 作用對象인 機體의 感受 靈敏度를 提高해야 할 뿐만 아니라, 機體의 周圍環境에 대한 超常作用을 包括해야 하는 것이다. 特異功能의 機體작용은 氣功功能에 비해서 크다. 客觀的인 현상은 氣功功能에 비해서 顯著하여 或者는 特異功能을 氣功功能의 高級段階라고 主張하기도 한다. 두 가지 모두다 理論價値와 研究價値가 매우 높다. 人類의 스스로의 身體에 대한 認識은 아직은 完全치 못하다. 人體의 潛在能力이나, 特殊功能은 아직 解決되지 않아 或者는 完全한 解釋은 不可能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科學的 方法을 이용한 觀察과 實踐을 통하여 歸納하여야 하며 盲目的인 追從이나, 輕率한 否定은 適切하

지 못하다. 반드시 앞으로의 여러 가지 難關은 克服해야 할 것이다.92)

그리고, 氣에 대한 現代科學的인 觀點의 하나인 複寫場效應- 複寫場攝影은 일종의 放電攝影인데 원리는 고빈, 고압하의 전장에서는 방전하여 빛이 보는데 이를 감광지를 사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複寫場 祖上의 훈발광모식과 生命活動은 有關하며, 生命體가 다치거나 죽었을 시 그림에 變化가 온다. 氣功鍛鍊過程中 練功者의 複寫場 變化는 變化가 있고 이러한 變化와 練功者의 功法種類, 功法修練 時間, 練功의 優勢 등과 有關하다. 일체 다른 것에는 變化가 없을 때, 功法前과 功法中의 機體의 變化는 複寫強度의 變化原因이 된다. 43例를 調査해보니 基本不變이 17例, 顯著變化는 5例, 약간의 變化는 21例였다. 氣功의 複寫場 變化를 研究하는 것은 가치 意義가 있다.93)

그리고, 氣功修練時 赤外線 輻射의 變化에 대해 살펴보면, 赤外線 複寫는 可視光線 구역과 極超短波 區域의 電磁波 주파수대 사이에 있다. 人體는 잠시도 그치지 않고 周圍로 赤외線을 複寫한다. 赤外線 技術을 氣功 鍛鍊에 이용하여 觀察하는 것은 效果의 이고도 簡便한 方法이다. 비교적 많이 應用하는 것으로는 紅外低溫 測溫儀와 紅外熱像儀 이다. HD-I형 紅外低溫測溫儀를 應用하여 氣功을 研磨하는 사람의 오른쪽 勞宮穴位를 測定하여 그 結果를 살펴보면, 練功過程 中에 나오는 赤外線 複寫는 어떤 種類의 低頻漲落波가 만든 것으로 이것은 처음으로 物理的인 手段을 利用하여 氣功에 대해 研究하여 報道한 것이다. HD-II형 紅外低溫

90) 장동욱, 정훈섭 共著 : 前揭書, pp.180~190

91) 김동렬, 김재우, 박정만, 서대현, 신연호, 박병운, 유상구 : 前揭書, p.104

92) 柳元亮 外1人 主編 : 前揭書, pp.36~37

93) 上揭書, pp.46~47

測溫儀를 氣功을 研磨하는 사람에게 利用하여 觀察한 結果를 살펴보면, 健康한 사람이 自然狀態에서 合谷 部分의 溫度는 不變하고 安定狀態에서 溫度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安定狀態에서는 交感神經의 興奮性이 低下된다는 것을 提示하는 것이다. 研究者들이 또 氣功을 研磨하는 사람이 收功하거나 發功하는 過程 중에 自身の 體表와 收功者의 體表의 赤外線 複寫 現象을 觀察하였는데 그중 믿을 만 한 것은 氣功을 研磨하는 사람은 自身の 體表에서 나오는 赤外線 複寫의 強度와 分布狀態를 制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收功者의 주관적인 感覺과 體表 赤外線 複寫는 관계가 있고, 收功者의 체표 赤外線 複寫의 변화와 練功者의 發功 과정 또는 練功者 자신의 體表 赤外線 複寫와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赤外線 技術은 廣範圍하게 氣功에 대해 研究할 수 있도록 만든 一種의 觀察과 測量手段이다. 그러나 간단히 赤外線 複寫가 바로 '外氣' 라고 認識하거나 혹 만들어진 赤外線이 바로 '外氣' 라고 認識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人體의 生命活動과 赤外線은 밀접한 관계는 있으나 氣功 에너지에는 많은 種類의 物理的 屬性이 있어 複雜하게 되어 있고 赤外線의 作用은 그 중의 一部分일 따름이므로 많은 研究가 必要할 것이다.<sup>94)</sup>

그리고, 氣功修練中の 音波反應을 測定한 結果, 氣功師는 運氣하는 過程 중에 몸에 여러 차례 音源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掌心이나 手指 等の 部位에 機械振動으로 各種 周波數의 機械運動을 만들 수 있으므로 亞音과 音은 練功時에

側定할 수 있다. 氣功을 研磨할 때에 音信號의 檢測을 일찍이 여러 번 했는데, 實驗 結果 練功者가 發功할 때의 振動波는 9-10Hz에서 1-2Hz가 덧붙여진 波라는 것이 밝혀졌다. 氣功을 研磨할 때에 測定된 1-2Hz의 亞音波는 脈搏의 拍動으로 형성된 것이다. 氣功을 研磨하는 過程 중에 이 波의 周波數는 增加할 수 있고 波의 幅도 또한 1.5배 增加할 수 있다. 그리고 9-10Hz 程度의 音波는 呼吸時 胸腔의 振動으로 形成될 수 있다. 덴마크의 BK 公司의 音信號檢測分析醫는 練功者에 대해 측정을 하였는데, 氣功을 연마할 때에 亞音信號의 周波數 도표에 最正常致가 10Hz에 있었다. 發功할 때에 周波數 도표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 이 값에서 注意할 것은 亞音은 體表 穴位에서 측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體表의 穴位에서 一定距離 떨어진 部位에서도 測定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人體의 亞音 또한 赤外線 複寫와 같은 식으로 부단히 周圍 環境에 에너지를 複寫하고 있다는 것을 說明하는 것이다. 따라서 音波測定의 結果 역시 상당히 有意性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不斷히 研究하면 氣功의 베일을 벗기는 데 一助를 할 것임에 틀림없다.<sup>95)</sup>

그리고, 氣功修練過程의 人體光學反應에 대해 살펴보면, 人體는 빛을 내는데 이는 生物體 發光現狀이다. 그리고 이는 人體生化學的 反應의 하나이다. 人體 生物發光線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아주 적은 人員만이 人體發光複寫를 볼 수 있고 測定할 수 있다. 氣功練功過程中には 生物分子量이 正常보다 많아지고 練功의 공

94) 上揭書, p.44

95) 上揭書, pp.44~45

제 능력도 강해진다. 이는 氣功鍊磨 時에 發光可能한 것은 一種의 超自然的 現象이다. 光量子的 變化는 一定한 研究計値가 있는데 手指摩擦, 發光物質 등을 除去한 후에 測定을 하였더니 光子數의 變化가 有意性있게 計測되었다. 따라서, 研究結果를 客觀化시켜 利用하면 氣功의 診斷 및 治療에 應用可能할 것이다.<sup>96)</sup>

그리고, 氣功修練時의 人體磁場의 變化에 대해 有關資料情報에 의하면, 練功者는 自身이 理想的인 生物電流를 만들 수 있으며 腦波에는  $\alpha$  파가 많이 나오는데 8Mhz로 振幅이 크고 150-180의 拍動이 보인다. 또 大腦 各 區域에 특별히 액엽과 정엽구  $\alpha$  파와 같다. 열심히 研磨하면 그 程度 또한 심해지고, 相關性 역시 強해진다. 이의 練功者는 一般人보다 交流電流感應能力이 뛰어나고 體表電位 發生變化 또한 그러므로 練功者는 一般人보다 人體電流의 疏通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氣功을 하다 보면 超自然的인 現狀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위의 글을 立證하는 것이다. 報道에 의하면 N극과 S극에서 冷熱感을 다르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S극은 熱感이 N극은 冷感이 있다는 것이다. 720도 以上 回轉後에도 南極과 北極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이다. 長期練功者는 S극과 N극에 다른 振動感을 느끼고 이것은 磁場의 同感覺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特殊한 境遇이고 普遍的이지 않다. 이는 認識으로 理解할 수 없는데 이는 人間의 潛在的 能力이기 때문이다. 氣功鍛鍊者는 一般人 以上의 磁場測定을 보이는데, 練功時에는 特殊한 指南力을 가지게 된다. 또, 練功時에

는 磁性生命單元이 配列을 이루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비교적 작은 磁場의 變化가 實驗중에 觀察되었고 CCH-1磁場計를 利用하여 進行을 觀察하였다니 磁場強度가 20-30정도 變化하는 것을 보았다. 變化에는 一定한 方向性이 있고 磁場의 強度는 練功者의 손의 振動이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氣功師들은 氣의 作用으로 磁針 캄퍼스를 回轉시키기도 하는데, 그 메커니즘은 '氣의 흐름'으로 발생한 '重力의 소용돌이' 때문이라는 假定하고 있다. 땅 속의 水道管 등을 檢査하는 dau 징뚝, 物體의 氣의 狀態를 檢査하는 錐 등도 아마 이 氣의 흐름에 의해서 생겨난 '回轉重力場'에 그 原理가 있지 않은가 보여진다.<sup>97) 98)</sup> 따라서 이러한 磁場의

變化에 대해 持續的인 觀察과 研究가 進行되면 科學的인 氣功의 診斷 및 治療 또한 可能하게 될 것이다.

現在 氣의 科學的 測定은 이미 中國에서 始作되어 相當部分 이루어졌고, 그 科學的 測定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氣의 存在를 認定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外氣에 대한 效用性에 대한 研究와 實驗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外氣로서의 效用이 가장 科學的 對象이 될 수 있는 蓋然性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外氣에 대한 研究는 주로 治療的 側面이 많이 強調되고 있어 最近 中國에서는 癌을 비롯한 各種 難治病을 氣功으로서 治療하기 위한 研究가 活發하게 進行되어 가고 있다. 또 다른 方面으로서 特異功能에 대한 研究로서 超能力의 分野에 대

96) 上掲書, pp.45~46

97) 上掲書, pp.45~46

98) 猪股修二 : 眞空は氣の海であつた, 氣の大辭典, 東京, 新入物往來社, 1994, pp.186~180



한 研究이다. 이 分野에서는 최근 中國을 비롯한 韓國 等地에서 知能氣功에 대한 研究가 한창 進行 中이다.

結果的으로, 氣功은 現代科學에서 많은 部分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氣의 物質的인 面에 置重되어 밝혀지든, 精神的인 面에 置重되든 氣功 自體에 대한 研究는 遙遠한 편이다. 물론 功法 自體는 直接的으로 研究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 效用性이 立證되는 方式의 研究가 될 수밖에 없는 面도 있으나 자칫 科學的 側面만 強調하다 보면 어느덧 氣功自體의 意味는 漸次 稀微해지고, 氣功自體가 가지고 있는 效用性에만 모든 것을 맞추어 거기에 맞게 科學化된 定型化된 客體가 誕生되는 現象들이 加速化되어 本質을 흐려버릴 수 있다. 氣功의 研究는 물론 科學的으로 꾸준히 그 데이터를 蓄積해야 하며, 더불어 氣功 自體에 대한 研究도 또한 適切하게 東西洋의 方法論이 結合된 形態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V. 考察

《素問·上古天真論篇》 “上古之人, 知其道者, 法於陰陽, 和于術數, 飲食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能形與神俱, 而盡千年, 度百歲乃去”<sup>99)</sup> 에서 和于術數의 術數는 氣功을 意味하는 것으로 韓醫學에 있어서 氣功歷史의 悠久함과 重要性을 알 수 있다. 氣가 現代의 重要한 研究對象이 되며, 世界의 注目을 끌게 된 것은 어쩌면 當然한 手順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氣’라는 言語를 통해 表現되는 自然自體의 攝理에 대한 人間의 回歸이다. 그것은

그러한 氣는 곧 氣功이라는 精巧하고도 體系化된 類型的 資產으로 中國을 中心으로 東洋에서 繼續的으로 發達되어 왔다. 곧 氣功은 氣가 人間에게 實現되는 精巧한 形態이다.<sup>100)</sup>

氣에 대한 解釋은 多樣한데, 지금까지 研究된 것을 假說的으로 定意한 氣의 概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氣는 生命力·生命 에너지·生體 에너지·生命의 根源의 힘이다. (이것은 다분히 生物學的인 概念이다.) 둘째, 氣는 物質이고, 情報이다.(物象的 概念으로 본다.) 셋째, 氣는 宇宙的인 에너지이다.(哲學的인 概念) 넷째, 氣는 意識化된 에너지이다.(心理學的 概念). 이러한 定義들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共通된 氣 概念은 “自然과 人體에 다함께 充滿되어 있고, 흐르고 움직이면서 작용하는 生命 에너지이다. 그리고 測定하거나 客觀的으로 把握하기가 容易하지 않다. 重要한 점은 意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sup>101)</sup> 그런데, 氣의 學文인 韓醫學의 諸般 診斷行爲는 器質的인 異常뿐 아니라, 주로 氣的인 變化 다시 말해 生體 에너지場의 變化를 感知하는 것이 주된 目標이다. 人體에 있어 氣의 變化는 卽刻的인 臨床的인 症狀의 發現과 連結되기도 하지만 潛在된 氣質的 疾病의 發生을 暗示하게도 한다.<sup>102)</sup> 그리고, 氣功診斷法은 氣 즉 念波를 利用한 여러 가지 韓醫學的 診斷法을 總稱한 것으로서 韓醫學의 여러 가지 診斷法에

99) 程士德 主編：素門注釋准粹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

100) 김준한, 안병상, 류영수：氣功醫學會誌 제 2권 제 1호, 氣功에 대한 科學的인 研究側面의 考察, 發行處 大韓醫療氣功學會, 1998, pp.205~229

101) 김재은：前掲書, pp.29~32

102) 김동렬, 김재우, 박정만, 서대현, 신연호, 박병운, 유상규：前掲書, p.102

서도 가장 높은 境地의 診斷法이며, 주로 醫師와 患者와 氣感을 共有함으로 疾病의 狀態를 診斷하는 것이다. 주로 手感診斷, 體感診斷, 振動子測程法, 觀氣法, 意感法, 透視法, 遙視法 등이 使用된다. 氣功診斷은 醫師의 修練(功力)이 깊어야 施行이 可能하며, 診斷時 醫師의 內氣를 使用하므로 多數의 患者에게 施行하기는 어렵다. 즉, 韓醫學的 診斷法과 함께 運用함이 效果의이다. 既存의 韓醫學的 診斷(望聞問切)에 根據하여 氣功治療를 行해도 전혀 무리가 없으므로, 이런 技法들을 獨立시켜 運用하기보다, 既存의 診斷法에 結合시켜 運用하는 것이 診斷의 效率 및 正確度를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sup>103)</sup> 氣功診斷法의 原理는 人體內에서 磁氣, 또는 氣의 均衡이 이루어져 있는가, 不均衡 狀態인가를 把握하는 것으로서 陰陽의 兩極에 관한 理論을 應用한 것으로,<sup>104)</sup> 經絡學說, 陰陽五行學說, 運氣學說 등의 韓醫學的 理論을 바탕에 두고, 醫師가 發功을 해서 患者의 狀態를 診斷하는 것이다.

參考文獻들을 통해 살펴본 바 氣功診斷法의 種類에는 크게 接觸해서 診斷하는 경우와 接觸하지 않고 診斷하는 경우로 區分할 수 있었는데, 具體的으로 分類해 보면 氣功診斷法에는 體感診斷, 內觀法, 透視法, 念力診察法, 振動子法, 意感法, 遙感法, 觀氣法, 知能氣功, 六神通, 接觸氣感應 診斷法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具體的인 氣功診斷法의 種類와 方法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氣功體感診斷法<sup>105)</sup>은 意念을 통해서 醫師와 患者가

主客一致의 상태에 이르러 患者의 病處를 診斷하는 方法으로 患者의 기운을 醫師의 몸 전체, 또는 손바닥으로 끌어들여서 느끼지는 感覺으로 患者의 상태를 파악한다. 患者의 몸 속에서 進行되고 있는 狀態를 診察者가 感覺으로 그대로 傳達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診察法보다 正確하다.

둘째, 氣功內觀診斷法은 마음속으로 어떤 現狀을 생각하고 그러한 現狀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행각한 후에 그것이 現實로 보이는 것같이 觀察되는 것을 말한다. 즉 自身の 精神狀態와 그 動作을 內面的으로 觀察하는 것이다. 內觀 現狀이 일어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原理가 있다. 그것이 隨意原理와 想念原理이다. 隨意原理는 우리가 活動하기 위해서 우선 自己 身體를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自身の 몸을 자기 意志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理致를 말한다. 想念原理라고 하는 것은 人間의 想念에 의해서 어떤 現狀을 일으키고 그 現狀을 支配하는 理致를 말한다. 內觀法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雜念을 除去하여 스스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姿勢에서 이루어 진다라고 하였다.

셋째, 氣功透視診斷法<sup>106)</sup>은 天目이 열려야 가능한 診斷法이다. 먼저 눈을 감고 혹은 감지 않고 意識으로써 病者의 內臟의 形狀을 살펴보는 것이다. 醫師의 功力이 높을수록 正確度가 높아진다. 病이 없

103) 이은미, 박은정, 유창순 : 前掲書, p.180  
104) 장동욱, 정훈섭 共著 : 前掲書, pp.230~232

105) 이은미, 박은정, 유창순 : 前掲書, pp.157

106) 段逸山 主編 : 醫古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23 : 《史記 扁鵲倉公列傳》에 의하면 “視見垣一方人 以此視病 盡見五臟癥結 特以診脈爲名耳”이라 하여 透視法이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部位는 투명한 빛이 나타나고 病이 있는 部位는 흐리거나 검은 색의 영상이 나타난다. 이 意念透視의 速度가 빠를수록 透視의 正確率이 높다고 할 수 있다. 印堂을 통한 透視는 兩眉間에 위치한 印堂 穴에 氣를 집중시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인데, 이때 緊張되지 않은 狀態로 印堂에 氣를 끌어모은 후, 無念의 狀態로 數千里 밖의 事物도 볼 수 있다는 說이다. 107) 《內功·養生術全書》에서는 天心은 兩眉 中間에 자리하고 있고 日月이 그것을 양쪽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天心을 鍛鍊하려면 곧 두 눈을 가볍게 감고 回光返照를하여 直接 印堂을 비치어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오래동안 鍊磨하면 빛이 그곳에 모이고 天心이 나타나고 玄關이 저절로 열린다고 한다. 人體의 透視, 그것은 天眼功의 一部 內容인데, 天眼功이라는 말은 佛家功에서 나온 것이다. 佛家は 天眼功의 段階를 5段階로 나눈다. 즉 肉眼功, 慧眼功, 法眼功, 佛眼功, 天眼功이 그것이며, 段階別로 次元이 높다. 道家는 天眼功을 開天目이라하여 부르는 法이 다르지만 實際 內容은 비슷하다. 天眼功은 3개 部分으로 나누어 제1部分은 內視이고, 제2部分은 透視이며, 제3部分은 僚視이다. 內視는 自身을 修煉할 때 自己의 體內를 返觀하여 內視하는 것을 가리킨다. 氣가 自己 內部에 運行함을 볼 뿐 아니라, 또한 五臟六腑와 骨格各方面의 狀況을 볼 수 있다. 108)

넷째, 氣功念力診察法은 生體의 氣波를 통해 診察者와 患者가 一致되어 患者의

病處를 診察하는 것인데, 고도의 修練을 하게 된 後에는 氣質的인 病 뿐만 아니라, 機能的으로 안 좋은 것까지도 診察이 可能한 方法이다. 腦波가  $\alpha$ 水準이나  $\theta$ 水準으로 내려가서 念力 診察을 하는 데, 크게 頭腦와 臟腑와 四肢로 區分하여 診察하며 本格的인 診察에 앞서 豫備 修練法에 熟達되어 있어야 한다. 109) 具體的인 修練方法은 첫째, 腦波를  $\alpha$ 水準이나  $\theta$ 水準으로 내린다. 둘째, 自身의 身體뒤에, 虛象인 自身의 모습을 생각한 후 頭腦, 頸椎, 胸椎, 腰椎, 骨盤, 四肢 등의 순으로 肉體의 解剖學的 構造를 觀察한다. 즉 自身을 客體와 虛像으로 區分하여 修練한다. 셋째, 印堂을 통해 客體인 自身의 實體 身體와 主觀的 對象인 虛象을 볼 수 있다. 이 修練을 통해 實在하는 自身의 身體 感覺을 意念을 통해 空間 移動함으로써, 자신의 身體를 잊고 他人과 自身의 主客一致를 이루며 自身의 實際的인 身體 感覺에서 오는 混同을 벗어나 相對方的 實際 身體가 지닌 生體反應과 共感함으로써 診察이 가능해진다.

다섯째, 振動子診察法은 生體物理學의 效果法이라는 名稱下에 普及되고 있는 것으로 放射磁力이 物體에서 나와 錘나 나뭇가지에 生體物理學의 效果를 준다하여 이를 活用하고 있다. 振動子診察法은 氣가 振動子를 통해 흘러들어가서, 測定되는 對象의 미약한 氣의 變化를 측정하는 것이다. 雜念이 없는 無意識의 狀態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對象의 氣波를 파악해야 한다. 110) 振動子使用法은 錘의 경우는 錘의 重量에 따라 다르겠지만 錘에서 6~

107) 장동욱, 정훈섭 共著 : 前掲書, pp.390~392

108) 서용규 著 : 道通氣功, 서울, 圖書出版 문원북, 1996, pp.30~32

109) 장동욱, 정훈섭 共著 : 前掲書, pp.383~386

110) 이은미, 박은정, 유창순 : 前掲書, p.157

15cm 정도의 길이로 엄지와 검지 및 中指로 끈을 잡고 마음을 安定시켜 意識을 잡는 손가락의 끝과 끈에 두어 自己 心臟의 拍動을 손끝에서 脈搏으로 느낄 때 어느 程度 腦波와 念波의 筋肉이 맞는 것이므로 이때에 質問을 하는 것이다. 可動中 意識을 鍾에 두지만 결국은 宇宙와 自身이 合一될 때에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된다. 振動子法이 熟達되면 探查鍾나 鋒을 사용하지 않고, 손의 氣느낌으로 判斷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잘되면 마음의 느낌으로 알 수가 있고, 이의 發展으로 透視가 이루어지는 것이다.<sup>111)</sup> 이것을 보고 臟腑의 虛實을 알 수도 있으며 또한 體質을 鑑別하는 데 利用되기도 하고 適合한 處方을 鑑別하는 데 活用한다.

여섯째, 氣功意感診斷法은 醫師가 먼저 患者의 整體的 形狀을 觀察한 後, 마음속으로 患者의 形狀의 輪廓을 想像한다. 患者의 形狀이 나타나면, 그 안을 한층 더 깊이 想像한다. 一般的으로 疾病이 있는 部位에는 검거나 混濁한 色이 나타난다. 이것으로써 病處 및 病의 性質을 把握할 수 있다.<sup>112)</sup>

일곱째, 氣功遙感診斷法은 먼 距離에 있는 患者를 診斷하는 方法이다. 患者의 이름이나 사진 혹은 所持品을 媒介로 하여 患者의 氣場을 파악한다.

여덟째, 氣功觀氣診斷法은 呼吸중의 呼吸와 吸氣의 變化에 맞추어 한 部位 또는 한 穴位로부터 다른 部位나 穴位로 意念을 옮겨가는 診斷方法으로<sup>113)</sup> 이 방법을 오랫동안 훈련해 나가면 心眼이 열리고

呼吸의 出入을 철저히 볼 수 있고 氣가 全身을 循環하게 된다. 즉 氣功觀氣診斷法은 身體의 한 部位 또는 經穴에 集中시킨 注意力을 一定한 路線을 따라 다른 部位로 移動시킴으로써 氣의 흐름을 誘導하는 診斷法이다.<sup>114)</sup> 診斷方法은 醫師가 入靜狀態에 들어간 다음, 눈으로 病者의 몸 주위를 觀察한다. 患者는 먼저 몸과 마음을 弛緩시키고, 雜念을 없앤 狀態에서 病處에 마음을 集中해야 한다. 醫師는 意守 上丹田을 해서 神을 保護하고 放出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病者의 몸 주위에서 病者가 放出하는 氣를 능히 觀察할 수 있다.<sup>115)</sup>

아홉째, 知能氣功에 의한 診斷法<sup>116)</sup>은 人間에게 內在되어 있는 潛在能力을 開發하여 現實로 나타나게 되는 뛰어난 能力을 가능하게 하는 氣功으로 주로 超能力的인 現狀을 일으키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석가모니가 6년여의 苦行 끝에 터득하였다고 하는 六神通이 있다.

1. 天眼通 : 透視力으로 실체를 보지 않고서도 벽 뒤에 있는 사물을 알아 맞히거나 책갈피 속의 물건을 직접 들여다보듯이 形狀이나 形體를 분간할 수 있음

2. 天耳通 : 透聽力으로 聽覺을 發達시켜서 상당히 먼 距離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며 그 位置까지도 밝혀 낸다고 함.

3. 他心通 : 讀心術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남의 생각을 모조리 간파해 내는 能力을 向上시켜 미리 準備하게 해 주는 能力을 말함.

111) 이상명 編著 : 氣科學, 서울, 대광 出版社, 1996, pp.291~302

112) 이은미, 박은정, 유창순 : 前揭書, p.158

113) 윤나다, 김경호 : 前揭書, p.38

114) 林厚省 著, 林準圭 譯 : 前揭書, pp.94~95

115) 이은미, 박은정, 유창순 : 前揭書, p.158

116) 홍성균 編著 : 前揭書, p.32

4. 宿明通 : 豫知力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알게 되거나 前世의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能力을 말함.

5. 神境通 : 縮地法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형상으로 몸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걸음이 매우 빠르게 되어 마치 날아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能力을 말함.

6. 漏盡通 : 精蓄法으로 신통력을 가졌다고 하여 여기저기 드러내지 않고 고요하게 안으로 다스려 혹세무민하지 않으며 精이 전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能力을 말함.

열번째, 接觸 氣感應 診斷法이 있는데. 이는 患者의 몸에 손을 대고 患者의 氣를 느낌으로서 病을 診斷하는 方法이다. 東洋醫學에서는 天氣, 地氣, 人體의 氣가 서로 交流하고, 西洋醫學에서는 宇宙의 磁氣, 人體의 磁氣가 서로 交流한다고 한다. 磁氣理論에 의한 接觸 氣感應 診斷은 施術者의 오른손으로 患者의 왼손을 잡고, 施術者의 왼손으로 患者의 오른손을 잡고, 施術者는 오른손으로부터 患者의 왼손으로 治癒氣를 發射시켜 患者의 몸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氣가 患者의 오른팔로 移動하여 施術者의 왼손을 통해 腦로 들어옴으로써 症勢를 느끼게 되는 方法이다. 즉, 磁氣는 같은 것끼리는 排斥하고, 異質인 것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自然의 法則을 利用한 것이다.<sup>117)</sup> 어떤 臟腑에 實證의 病變이 있으면 반드시 그와 關聯하는 體表의 經絡에 反應이 나타난다. 그 反應은 여러 가지 形態로 나타날 수 있는데 壓痛點, 硬結, 皮膚色澤의 以上, 溫度感覺의 異常, 各種 皮膚疾患 等等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經穴을 눌러서

나타나는 壓痛點은 經絡의 虛實을 살피는 重要한 診斷法인 同時에 治療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確認하는 指標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多樣한 氣功診斷法을 體得하기 위해서는 基本的인 氣功修煉過程이 꼭 必要한데, 이것이 바로 意念, 呼吸, 姿勢이다. 姿勢의 鍛鍊, 呼吸의 鍛鍊, 意念의 鍛鍊을 古代人들은 調身, 調息, 調心이라 稱한 것이다. 調心은 心理活動을 調節하는 것이고 調息은 呼吸運動을 調節하는 것이며 調身은 身體의 姿勢와 動作을 調節하는 것이다. 그러나 姿勢, 呼吸, 意念의 세 가지는 서로 分割할 수 없는 것이며 서로가 影響을 미치면서 結合, 運用되며,<sup>118)</sup> 이 세 가지 要素가 正確하게 結合되어 造化를 이루면 診斷方法이 더욱 精密하게 된다.

이 외에도 氣功診斷을 하기 위한 基本的인 修練의 過程인 外氣發功의 訓練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采氣, 沈氣, 固氣, 運氣, 發氣 等の 段階를 經過하여야 한다. 采氣는 意念下에 外界의 清陽한 氣(天氣, 地氣와 元氣를 混合)를 穴位에 通過시키는 것이며<sup>119)</sup>, 沈氣는 外界의 清陽한 氣를 采入한 後 意念下에 丹田으로 下沈시키는 것으로서 後天의 氣로서 不斷히 消耗되는 先天의 氣를 補充시키는 것이다. 沈氣를 訓練하는데는 基礎的으로 固氣, 即 意守丹田을 하고, 運氣 즉 丹田部位의 元氣, 眞氣를 某穴位로 運行시키는 것이 있다. 위에서 敍述한 各 段階의 功法訓練을 充分히 한 後에는 發氣를 練習해야 한다. 發氣는 意念下에 體內의 元氣, 精微한 氣를 某穴位에서 體外로 發功시키는 것이

117) 장동욱, 정훈섭 共著 : 前掲書, pp.226~230

118) 박종관 著 : 前掲書, p.60

119) 高學亭 注編 : 前掲書, p.454

다. 上述한 5 段階는 氣功外氣發功의 基本要領을 練習하는 것으로 概括하면 由淺入深하고 이런 過程을 完成한 後에 반드시 刻苦의 努力과 長期間의 功法訓練을 거쳐야 外氣를 發出할 수 있는 것이다. 外氣運氣를 잘하기 위해서는 意念을 鍛鍊하는 것이 重要한데 氣는 意를 따라 行하고 意는 氣를 따라 行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便하게 하는 것이 入靜의 初步段階로 우선 意念丹田하여 쉽게 意念으로 氣를 다스리고 意念에 따라 氣를 運行시키는 것이다.<sup>120)</sup> 그런 다음 他人의 氣를 느끼는 方法은 에너지 狀態가 高潮된 오른손바닥을 他人의 왼손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다음은 意念을 集中해서 천천히 接近했다가 떨어졌다 하거나, 患者의 손위에서 돌린다. 相對方의 呼吸에 맞추듯이 하면 周波數가 맞은 듯이 어느 時點부터 강한 氣感을 느끼게 된다. 癢痒感, 熱感, 清涼感, 壓力感 等이다. 이와 같은 訓練을 繼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氣에 대한 感受性은 漸漸 더욱 強해진다.

또한, 氣功診斷法에 대한 現代科學的인 認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氣功診斷을 새롭게 解釋하고 應用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이에 現代 文獻들을 參考로 하여 살펴본 結果를 다음에 提示한다.

우선 氣에 대한 새로운 研究의 對象이 된 오라는 人體에서 放射되는 色光線으로서 1939년 蘇聯의 電氣 기사 세미온 킬리안이 發明한 特殊한 사진기로 撮影되어 그 存在가 確認되었다. 이들은 여러 가지 物體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본 結果 生體의 狀態에 따라 사진의 映像이 얻어지는 狀態, 즉 밝기나 색깔, 形態 등이 다르다

는 것을 發見하였다.<sup>121)</sup> 오라는 여러 가지 機能이 있다고 報告 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으면 오라를 自己 自身の 健康에 利用할 수 있고, 他人의 診斷 및 治愈에도 應用할 수 있다. 오라放電攝影技術은 人體의 에너지 狀態를 撮影하는 技術이어서 韓醫學의 原理와도 概念的으로 잘 一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라 放電攝影 技術을 韓醫學의 立場에서 再解釋할 수 있는 研究를 바탕으로 韓醫學의 診斷 方法으로 開發하는 것은 대단히 重要하다.

또한, 科學的 研究對象의 하나인 特異功能은 人間에게 內在되어 있는 潛在能力을 開發하여 現實로 나타나게 되는 뛰어난 能力을 가능하게 하는 氣功으로 주로 超能力的인 現狀을 일으키며 이를 診斷에 應用하는 것이다. 그러나, 氣功에 基礎해서 말한다면, 氣功과 特異功能은 根本은 같은 것이며, 氣功은 特異功能을 觸發할 수가 있고, 特異功能은 氣功의 鍛鍊을 必要로 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氣功과 特異功能은 모두 人體科學의 範疇에 屬하며, 最近에 와서야 研究가 始作되었다.<sup>122)</sup>

氣에 대한 現代科學的인 觀點의 하나인 複寫場效應- 複寫場攝影은 일종의 放電攝影인데 원리는 고빈, 고압하의 전장에서 방전하여 빛이 보는데 이를 감광지를 사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氣功鍛鍊過程中 練功者의 複寫場 變化는 變化가 있고 이러한 變化와 練功者의 功法種類, 功法修練 時間, 練功의 優勢 등과 有關하다. 일체 다른 것에는 變化가 없을

120) 王寅 編著 : 全揭書 pp.47~50

121) 김동렬, 김재우, 박정만, 서대현, 신연호, 박병운, 유상구 : 前揭書, p.103

122) 김재은 : 前揭書, p.258

때, 功法前과 功法中の 機體의 變化는 複寫強度的 變化原因이 된다.<sup>123)</sup>

氣功修練時 赤外線 輻射의 變化에 대해 살펴보면, 人體는 잠시도 그치지 않고 주위로 赤外線を 複寫한다. 赤外線 技術을 氣功 鍛鍊에 이용하여 觀察하는 것은 效果的이고도 簡便한 方法이다. 비교적 많이 應用하는 것으로는 紅外低溫測溫儀와 紅外熱像儀 이다. 收功者의 體表의 赤外線 複寫 現象을 觀察하였는데 그중 믿을만 한 것은 氣功을 研磨하는 사람은 自身의 體表에서 나오는 赤外線 複寫의 強度和 分布狀態를 制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收功者의 주관적인 感覺과 體表 赤外線 複寫는 關係가 있고, 收功者의 체표 赤外線 複寫의 변화와 練功者의 發功과정 또는 練功者 자신의 體表 赤外線 複寫와도 關係가 있다는 것이다. 人體의 生命活動과 赤外線은 밀접한 關係는 있으나 氣功 에너지에는 많은 種類의 物理的 屬性이 있어 複雜하게 되어 있고 赤外線의 作用은 그 중의 一部分일 따름이다.<sup>124)</sup>

氣功修練中の 音波反應은 氣功師가 運氣하는 過程 中에 몸에 여러 차례 音源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掌心이나 手指 等の 部位에 機械振動으로 各種 周波數의 機械運動을 만들 수 있으므로 亞音과 音은 練功時에 側定할 수 있다. 氣功을 研磨할 때에 音信號의 檢測을 일찍이 여러 번 했는데 實驗 結果 練功者가 發功할 때의 振動波는 9-10Hz에서 1-2Hz가 덧붙여진 波라는 것이 밝혀졌다. 人體의 亞音 또한 赤外線 複寫와 같은 식으로 부단히 周圍 環境에 에너지를 複寫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sup>125)</sup>

氣功修練過程의 人體光學反應에 대해 살펴보면, 人體는 빛을 내는데 이는 生物體 發光現狀이다. 人體 生物 發光線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아주 적은 人員만이 人體 發光複寫를 볼 수 있고 測定할 수 있다. 氣功練功過程中에는 生物分子量이 正常보다 많아지고 練功의 公제 능력도 強해진다. 이는 氣功鍊磨 時에 發光可能한 것은 一種의 超自然的 現象이다. 光量子的 變化는 一定한 研究計值가 있는데 手指摩擦, 發光物質 등을 除去한 후에 測定을 하였다니 光子數의 變化가 有意性있게 計測되었다.<sup>126)</sup>

氣功修練時的 激光偏振面의 影響에 대해 살펴보면 激光偏振面이란 것은 激光氣功作狀態의 比較的 英敏한 指示를 反映하는 一種이다. 激光器에서 遠距離作用時 激光振面은 數時 間接變化가 發生한다.

現在 氣의 科學的 測定은 이미 中國에서 始作되어 相當部分 이루어졌고, 그 科學的 測定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氣의 存在를 認定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外氣에 대한 效用性에 대한 研究와 實驗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外氣로서의 效用이 가장 科學的 對象이 될 수 있는 蓋然性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外氣에 대한 研究는 주로 治療的 側面이 많이 強調되고 있어 最近 中國에서는 癌을 비롯한 各種 難治病을 氣功으로서 治療하기 위한 研究가 活發하게 進行되어 가고 있다. 또 다른 方面으로서는 特異功能에 대한 研究로서 超能力의 分野에 대한 研究이다. 이 分野에서는 최근 中國을 비롯한 韓國 等地에서 知能氣功에 대한 研究가 한창 進行 中이다. 氣功診斷에 대

123) 上揭書, pp.46~47

124) 上揭書, p.44

125) 上揭書, pp.44~45

126) 上揭書, pp.45~46

한 研究는 물론 科學的으로 꾸준히 그 데이터를 蓄積해야 하며, 더불어 氣功診斷法 自體에 대한 研究도 또한 適切하게 東西洋의 方法論이 結合된 形態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 結論

다음은 以上에서 살펴본 氣功診斷法の 定意·原理·方法·修練過程·現代科學的 認識에 대한 結論이다.

1. 氣功診斷法이란, 氣로써 患者의 氣波를 感知하여 人體內에서 磁氣 또는 氣의 均衡이 이루어져 있는가, 不均衡 狀態인가를 把握하여, 患者의 內部 狀態를 觀察하고, 또한 治療法을 設定하는 診斷法이다.
2. 氣功診斷法の 原理는 經絡學說, 陰陽五行學說, 運氣學說 등의 韓醫學的 理論을 바탕으로 두고, 醫師가 發功을 해서 患者의 狀態를 把握하는 것으로, 陰陽의 兩極에 관한 理論을 應用한 것이다.
3. 氣功診斷法の 種類에는 크게 接觸해서 診斷하는 경우와 接觸하지 않고 診斷하는 경우로 區分되고, 具體的으로 氣功體感診斷法, 氣功內觀診斷法, 氣功透視診斷法, 氣功念力診察法, 振動子診斷法, 氣功意感診斷法, 氣功遙感診斷法, 氣功觀氣診斷法, 特異功能에 의한 診斷法, 六神通, 接觸 氣感應 診斷法 등이 있다.
4. 氣功診斷法을 體得하기 위해서는 基本的인 氣功修練過程이 꼭 必要한데, 이것이 바로 意念, 呼吸, 姿勢이다. 姿勢, 呼吸, 意念의 세 가지는 서로 分割할 수 없는 것이며 서로가 影響을 미치면서 結合, 運用되며, 이 세 가지 要素가 正確하게 結合되어 造化를 이루면 診斷

方法이 더욱 精密하게 된다. 이 외에도 氣功診斷을 하기 위한 基本的인 修練의 過程인 外氣發功의 訓練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采氣, 沈氣, 固氣, 運氣, 發氣 등의 段階를 經過하여야 한다. 上述한 5 段階는 氣功外氣發功의 基本要領을 練習하는 것으로 概括하면 由淺入深하고 이런 過程을 完成한 後에 반드시 刻苦의 努力과 長期間의 功法訓練을 거쳐야 外氣를 發出하게 되어 診斷할수 있는 것이다.

5. 氣功診斷法에 대한 現代科學的인 認識에 대해 살펴보면, 오라에 대한 研究, 特異功能에 대한 研究, 複寫場效應-複寫場攝影의 연구, 音波反應, 人體光學反應, 激光偏振面의 影響에 대한 研究들이 있으며, 現在 氣의 科學的 測定은 이미 中國에서 始作되어 相當部分 이루어졌고, 그 科學的 測定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氣의 存在를 認定하고 있다. 따라서, 氣功診斷에 대한 研究는 물론 科學的으로 꾸준히 그 데이터를 蓄積해야 하며, 더불어 氣功診斷法 自體에 대한 研究도 또한 適切하게 東西洋의 方法論이 結合된 形態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 氣功診斷法은 既存의 韓醫學的 診斷法인 望, 聞, 問, 切과 연계하여 運用하면 診斷의 效率 및 正確度を 높일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되며, 實際 臨床에서도 氣功診斷法이 폭넓게 普及되고 더욱 研究 發展되면 疾病豫防 및 治療에 도움이 될 것이다.

## VI. 參考書籍

1. 유아사 야스오(湯淺泰雄)著 손병규



- 譯：氣와 人間科學, 서울, 麗江出版社, 1992
2. 程士德 主編：素門注釋准粹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3. 高鶴亭 主編：中國醫用氣功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4. 이동현：健康氣功, 서울, 出版社 精神世界史, 1998
  5. 장동욱·정훈섭 編著：綜合氣功, 서울, 出版社 좋은글, 1994
  6. 김재은 編著：氣의 心理學,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96
  7. 김영현 編著：神仙道, 서울, 하남出版社, 1996
  8. 이원춘 編著：146가지 氣功療法, 서울, 태學堂 出版社, 1996
  9. 이상명 編著：氣科學, 서울, 大光出版社, 1996
  10. 홍성운 編著：疾患別 氣功治療學, 서울, 圖書出版 大學書林, 1998
  11. 양요한 編著：陰陽五行氣功, 서울, 麗江出版社, 1993
  12. 科學百科事典綜合出版社 著：再編集 東醫學辭典, 서울, 圖書出版 가치, 1990
  13. 朴一峰 譯：東洋古典新書2(孟子), 서울, 育文社, 1994
  14. 洪丕謨 編：道藏氣功要集(下), 上海, 上海書店出版, 1995
  15. 柳元亮 外1人 主編：中醫氣功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6. 陽思澍 外 編著：中醫臨床大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88
  17. 林厚省 著 林準圭 譯：中國氣功, 서울, 保健新聞社, 1987
  18. 王寅 外：氣功特殊診病法,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9
  19. 王慶余, 曠文楠 著：道醫竅秘,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4
  20. 馬禮堂 編著：中老年保健功, 北京, 中國城市出版社, 1991
  21. 박종관：中國輕氣功, 서울, 書林文化社, 1992
  22. 韓國仙道學會 編譯：健康과 氣功, 서울, 出版社 명지사, 1996
  23. 段逸山 主編：醫古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24. 李遠國：中國道教氣功養生大典, 四川省, 四川辭書出版社, 1992
  25. 서용규 著：道通氣功, 서울, 圖書出版 문원북, 1996
  26. 越寶峰：氣功療法 100問, 甘肅省, 甘肅人民出版社, 1984
  27. 니시노(西野皓三)：氣, 知的身體의 創造, 東京, 講談社, 1990
  28. 崔容泰 外：鍼灸學(下), 서울, 集文堂, 1988
  29. 猪股修二：眞空は氣の海であつた, 氣の大辭典, 東京, 新入物往來社, 1994
- 參考論文
1. 윤나다, 김경호：氣功修練時의 意念에 대한 考察, 大韓醫療氣功學會誌 제2권 제1호, 發行處 大韓氣功醫學會, 1998
  2. 김동렬, 김재우, 박정만, 서대현, 박병운, 신연호, 유상구：코로나 放電攝影을 利用한 韓醫學的 臨床診斷 研究, 韓國精神科學學會 98年度 春季學術大會, 1998
  3. 이은미, 박은정, 유창순：醫療氣功에 대한 考察, 大韓醫療氣功學會誌 제2권 제1호, 發行處 大韓氣功醫學會, 1998
  4. 김준한·안병상·류영수：氣功醫學會誌 제2권 제 1호, 氣功에 대한 科學的研究側面의 考察 發行處 大韓醫療氣功學會, 1998

5. 全永光 編著 : 探究해 본 氣의 世界,  
韓國精神科學學會 97秋季大會 및 제1  
회 國際氣科學 學術大會 論文集,  
1997
6. 윤금선 : 嚴新氣功科學의 精粹, 韓國  
精神科學學會 98年度 春季學術大會,  
發行處 韓國精神科學學會, 1998
7. 이현경 · 김경환 · 윤중화 : 大韓氣功  
醫學會誌 제2권 제2호, 外氣治療時  
得氣感에 觀한 臨床的 考察, 서울, 發  
行處 大韓醫療氣功學會, 1998